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041-01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삶의 질

따뜻한
정책을 말하다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 사례 10선

살의길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CONTENTS

보건·복지 06

지역사회,
장흥의 건강을 책임지다
장흥군 보건소

보건·복지 17

여성 농업인이 꾸리는
생산과 복지의 행복 공동체
무안 여성농업인센터

교육 27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의 미래
완주 고산향 교육공동체

정주생활기반 42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곳,
내 고향 두원마을
진안 두원마을

경제활동·일자리 55

농촌관광의 새로운 실험
강진 푸소 체험

경제활동·일자리 65

함양군 특화산업,
농민 창업의 길을 열다
함양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문화·여가 75

생활문화를 디자인 하다
금산 문화의 집

문화·여가 90

칠갑산 자락에서 싹 틔운
예술꽃 씨앗
청양 수정초등학교

환경·경관 99

악취잡고 소득올린
유일무이 반전마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회적농업 110

지역사회 품속에서 성장하는
젊고 따뜻한 농장
홍성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

발간사

농어촌은 도시민의 마음의 고향이자 농어업인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농어촌은 고령화 및 과소화지역의 증가, 불리한 지리·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의료, 교육, 문화 등 기초생활 서비스 측면에서 도시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8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최고의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킨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삶의 질, 따뜻한 정책을 말하다」 우수사례집에서는 보건·복지, 문화·여가, 정주생활기반 등 현장에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한 우수사례 열 점을 담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린 사례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 우수사례집이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정책을 재확인하고 향후 역할과 책임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농어촌 주민과 국민에게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역사회, 장흥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장흥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시·군·구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촌 지자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장흥군의 사례를 소개한다.



열악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노령화되는 지역사회

장흥군은 서울에서 승용차로 4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광주와도 한 시간의 거리가 있는 원격 농촌 지역이다. 2017년 7월 말 기준, 장흥군 주민등록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인구는 39,961명이다. 장흥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1.6%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흥군 주민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 지역에 의료기관이 42곳 있으나, 장흥읍에 절반 이상(67%, 28개소)이 편중되어 있고 장동면, 장평면 등 면 단위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만 있는 지역도 상당수 많다. 큰 질병에 걸리면 상위 의료기관이 있는 대도시로 가야 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도 이유중에 하나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살펴보면 농촌 현실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는 의사에게 진료 받으려면 근처 병원을 찾아가면 된다. 거의 집 주변 10분 이내의 거리에 의사가 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장흥군에는 상근 의사가 60여 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장흥읍에 50명이 있다. 장흥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 공중 보건 의사가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갑자기 몸이 아플 경우 장흥읍이나 도시로 가야만 하는게

현실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의 의료 서비스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나마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많은 의사들이 대도시나 도시 주변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장흥 같은 농촌에서 근무하려는 의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 사이에서 사후 진료 방식이 아닌, 체조와 운동을 함으로써 질환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예방하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오랜 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농부증'이라고 부를 만큼 농민들에게 흔한 질환으로, 장흥 주민을 괴롭히는 주요 질병이기도 하다.

장흥군 보건소는 주민들을 위해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요통이나 어깨 결림 등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설문 조사를 하여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농촌에서 보건·건강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장흥군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준비된 보건 인력을 찾기보다는 지역 전문가를 직접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장흥군은 지역내 보건전문가와 서비스전달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현재까지 장흥군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방 중심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가가호호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장흥군이 2004년부터 추진해 온 '푸른장흥건강대학'이 그 기반의 중심이 되었다.



지역사회 건강 지도자가 장흥의 건강을 책임지다

'푸른장흥건강대학(이하 건강대학)'은 노년층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자 마련한 건강 강좌 프로그램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50대~70대의 주민 중 희망하는 60명을 대상으로 12

주(72시간) 간 학사 일정이 진행된다. 생활 원예, 걷기 운동, 현장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 노년의 삶에 유익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대학 학생들은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건강관리 방법을 전파하는 건강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2004년 제 1기를 시작으로 2017년 14기 졸업생까지 총 810명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동문회 조직을 만들어 건강 지도자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동네방네 100세 운동교실’, ‘건강 서포터즈’ 활동 등 보건·건강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졸업생 중 일부는 운동 지도자 양성 교육이라는 심화 과정을 이수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건강대학이 10여 년 넘게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건강 지도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보건소와 거리가 먼 면 지역의 마을 경로당에서 건강 지도자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효과가 크다. 장흥군 보건소에서 여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보건소가 있는 읍내로 나오기 힘든 노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로당에 무료하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에서 벗어나 마을 단위에서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고, 건강대학의 졸업생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졸업생 중 민간 건강 지도자를 활용하여 마을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사업을 위해 지역이 하나로 뭉치다

장흥군이 '건강1번지 장흥'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건강과 치유의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은 2006년부터다. 2006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 2007년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장흥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여러 사업과 장흥군 보건소가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였다. 지역민의 생활 및 영양 습관을 조사한 후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를 시작하였다. 지역 내외의 기관과 전문가들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민에게 양질의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선대, 원광대, 목포대에서는 건강 지도자 육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보건소는 건강대학 졸업생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간담회와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다.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주민이 원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구분	기관	협력내용	
행정기관	읍면사무소	각종 보건 사업 홍보, 경로당 건강 증진 사업 협조	
	주민복지과	방문 보건 사업 대상자 연계 관리	
	환경산림과	아토피캠프 운영 지원, 금연캠프 운영 지원	
	문화관광과	아쿠아 수중 운동 교실 운영 지원, 축제 및 행사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	
	농업기술센터	연중 영농교육 시 보건교육 운영	
학교	교육청	무지개학교 연계 및 금연이동클리닉 운영	
	학교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영양·신체활동·구강보건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연계 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단체 및 기관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홍보, 각종 보건사업 자원봉사	
	보육시설협의회	사업신청 및 협조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홍보,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걷기 실천 사업 추진	
	장흥군노인회	읍면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홍보
			요양시설, 복지시설
요양시설, 복지시설	대상자 파악 관련 협조체계 유지 운동 지도자 파견 : 건강체조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		
의료관련협회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의뢰, 질병모니터링 연계협조, 환자 관리교육, 자문 의뢰	
전문가 조직	전남대, 목포대, 동신대, 조선대, 원광대 한방병원, 광주보건대	사업 자문 및 교육	
	공단협의회	금연클리닉 홍보 및 금연교육 대상자 선정	

그러나 장흥군청, 보건소, 지역 기관, 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가 매년 마을로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보건소가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인력, 예산, 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역량을 갖춘 건강 및 운동 지도자와 함께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하나인 ‘경로당 운동교실’은 운동 지도자가 경로당을 찾아 다니며 가벼운 스트레칭, 레크리에이션, 건강 체조, 영양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2017년 5월 한 달 동안 운동 지도자 65명은 93개 경로당을 찾다니며 총 570회의 운동 교실을 운영하였고, 5월에 참여한 인원만 6,414명에 달한다. 농촌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무료로 있을 시간에 스트레칭이나 체조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건강 및 운동 지도자들은 자원 봉사활동으로 건강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보건 증진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 행사와 축제가 개최될 때 건강 캠페인, 영양 교육 등을 진행한다. 특히 남성 지도자들은 금연 서포터즈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건강한 생활 방식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건강·운동 지도자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봉사과 더불어 자신들의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정신 및 신체 건강도 개선할 수 있었다.

운동 지도자들의 활동은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2017년 현재 건강대학 졸업생



중 11.6%인 86명이 운동 지도자로 양성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50대~70대 주민으로 주 2회 2~4시간을 활동하며 매달 15만원을 강사료도 받는다. 이들은 ‘경로당 운동 교실’과 더불어, ‘동네방네 100세 운동 교실’, ‘우리 춤’, ‘실버 생활 체조’, ‘모던 댄스’ 등 소그룹 운동 프로그램 전문 강사로도 활동한다.

2016년 장흥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1.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건강환경조성	금연 환경 조성 및 건강계단 조성 사업	
		건강환경 조성	
2. 한울타리 통합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지킴이	금연절주사업	
		건강한 학교 만들기/ 텃밭가꾸기	
		장애발생 예방교육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청소년 한방 월경통 진료사업	
		건강교실 및 농한기 주민오락(五樂)	
	성인을 위한 건강 지키기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관리	
		금연절주사업	
		소그룹건강교실(모던댄스, 실버댄스, 건강대우리춤)	
		푸른장흥건강대학	
		관절튼튼 아쿠아 수중 운동교실	
		다같이 걷자 건강 걷기 동호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2017년 공모사업 추진	
		야간프로그램(직장인 그룹 피티, 난타교실), 건강증진센터 연장 운영	
		생활터 건강증진 다사랑건강드림	
		노인을 위한 건강 지키기	건강100세 운동교실,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기
건강하고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낙상예방교실			
한의학 중풍예방교실			
한의학부부건강클리닉 교실			
아버지건강교실			
활력증진 프로젝트 사업(단국대 MOU)			
3. 아이사랑 엄마사랑 건강 증진사업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어린이 튼튼 건강교실/ 영양실습, 저염식이	
		영양플러스	

2016년 장흥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4. 건강나눔 희망나눔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순회 진료 운영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팀 운영
		경로당 순회 진료(의과·한방·보건교육 등)
	가족사랑 치매관리 사업	정남진 사랑 나눔 봉사대 참여
		치매진단·감별검사(전문병원 연계 실시)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행복한 동행 장애인 재활사업	재활센터 프로그램(감각운동, 작업치료, 미술놀이, 음악치료 등)운영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 발생 예방 교육

보건소는 건강대학 외에도 주민의 생애주기별 보건·건강 특성과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울타리 통합 프로그램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게 하여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인에게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질병의 증상과 문제점,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질병 교육, 관리 활동으로 잠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해 합병증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기존의 건강 프로그램이 여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남성 주민들이 보건·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점을 알게 된 장흥군 보건소는 남성 주민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고 금연 캠페인 등에 참여하게 하였다. 남성 주민의 보건소 출입 기회를 늘려 스스로 건강을 챙기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보건소 활동 결과, 건강 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은 질병에 관한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었다. 보건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고 프로그램 참여율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장흥군보건소의 성과

2016년 장흥군에서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라는 국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민이 만드는 건강 축제를 기획하였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육성한 역량을 활용하여 기획부터 진행까지

주민들이 주도해 진행하기로 하였다. 건강대학 총동문회, 기수별 회장단, 걷기 동호회, 소그룹 민간 지도자, 경로당 운동 지도자 대표 등 그동안 만들어진 팀 운영진들이 ‘참여형 건강증진협의체’를 구성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축제 계획을 수립하였다. 실제 박람회장에서는 경로당, 복지관, 소그룹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건강체조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단순한 축제 참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노인 세대가 주체가 되어 건강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 방식을 전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주민 개인의 노력도 건강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 의료 복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의료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예방 목적의 건강 프로그램 개발은 고령층과 자녀 세대의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장흥군의 건강 증진 사업은 지역 주민의 역량을 활용하여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건강·보건 관련 업무는 정부, 지자체 담당 부서, 전문가의 고유 영역으로만 간주되어 왔지만, 장흥군의 상향식 보건·의료 복지 모델은 지역 주민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다른 지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유리 연구원, 정문수 부연구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사업목표** 지자체에 건강증진사업 운영의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추어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 **사업기간** 2013~계속
-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여성농업인이 꾸리는 생산과 복지의 행복 공동체

무안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 다양한 교육, 영유아 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여성 농어업인의 경제 활동과 복지 등을 지원할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 영유아 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여 해결책을 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충 상담, 보육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늘어나면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설정한 역할이 줄어들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활동 중에서도 특정 목적이 제한된 범위의 사업만 지원하도록 정부 지침을 만들었기에 활동에 제약이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 공공 서비스 수준, 농어업 환경 등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센터에 요청하는 바도 지역마다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센터가 설립된 지 15년이 흐른 지금, 센터의 역할 및 추진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필요한 사회적 돌봄의 영역과 삶의 질 서비스 수요는 연령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젊은 세대의 여성 농어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 활동을 하도록 영유아 보육과 어린이 방과 후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가 종사하는 농업 및 농외 활동에 따라 필요한 교육도 다르기에, 이들에게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한편, 고령의 여성 농어업인에게는 건강, 영양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 농업인과 대면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힘써 온 여성농업인센터는 다양한 수요와 농촌의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에 대한 궁금함을 품은 채,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를 방문했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무안군 여성 농업인의 현황과 문제점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가 위치한 현경면은 무안군에서도 서해에 면한 해안 지역이다. 이곳에서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과 어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가사와 마을 일을 부지런히 돌보며 생활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녀 보육과 교육이다.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여성들은 농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자 자녀 교육에 관심을 쏟는다. 학교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나마 교육 여건이 갖추어진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

특히 농번기에는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들다. 과거에는 이웃이 모여 살면서 아이 돌보는 일을 서로 분담했지만, 요즘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또래 여성이 드물고, 동네 주민 사이의 관계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지역사회 여성 농업인 연대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는 2006년 개소한 이후, 현경면을 포함한 무안군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과 관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여성 농업인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무안군 여성 농민회가 수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여성 농민회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한다.

센터는 여성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에 집중하도록 고충 상담과 어린이 방과 후 교육 등을 진행한다. 올해 농번기에는 여성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토요 공부방을 운영하였다. 현경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어린이집이 운영되므로 센터가 별도 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만, 농번기 주말 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이 외에도, 센터는 자체적으로 부정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주민 대상의 다양한 교육 사업, 독거노인에게 반찬 꾸러미를 전달하는 복지 사업, 무안군 여성 농민회의 ‘언니네 텃밭 무안공동체’ 등 경제 활동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주민 대상의 교육 사업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년 단위로 교육이 갱신되며, 현재까지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다양한 강좌를 수강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다. 이들 중 20여 명은 교육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활동 주체가 되었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학과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협업한 결과 ‘2015 무안 여성을 위한 여름 강연회: 살자, 날자’라는 제목으로 두 달 간 총 6회의 여성 농업인 인문학 강연회를 했고, ‘2017 먹거리 강연회: 먹거리와 농촌사회’라는 주제로도 2회 강연회를 열었다.

센터가 추진했던 문화 프로그램도 핵심 사업이다. 여성 노인들이 오카리나 및 폼바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이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얻어 현경면뿐만 아니라 무안읍과 인근 시·군의 여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폼바 교실은 무안군의 전통문화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품바 타령을 계승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센터는 식량 주권 사업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언니네텃밭 무안공동체’에서 추진한 제철 꾸러미 사업을 비롯하여, 토종 종자 보존 사업, 도·농교류 활동 등을 무안군 여성 농민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무안군 여성 농업인들이 모인 ‘무안공동체’가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 협동조합’에 참여하여, 주로 제철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무안공동체가 생산·수집한 농산물과 식품을 포장하고, 택배 보낼 수 있는 간이 시설을 갖추고 지원한다. 이 같은 센터의 지원으로 무안군 여성 농업인 생산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었다.

무안공동체는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파, 마늘, 부추, 고추, 고구마, 도라지, 갓, 취나물, 방풍 등 특색 있는 작물을 생산한다. 게다가 갯벌에서 여름에는 바지락을, 겨울에는 감태와 김을 채취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활용하여,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김치, 제철 나물, 두부, 장아찌 등의 반찬을 손수 만든다. 매주 센터에 모여 회의를 거쳐 그 주에 내보낼 제철 채소와 반찬을 결정하면, 생산자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다. 이렇게 기르고 만든 제철 먹거리들이 언니네텃밭 협동조합의 유통망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배달된다.



센터는 지역 여성 농업인들과 함께 ‘행복 꾸러미 활동’도 벌이고 있다. 농어촌 희망재단의 ‘교육문화공동체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행복 꾸러미 활동은 여성 농업인들이 직접 기른 농작물로 반찬을 만들고, 독거노인에게 반찬 꾸러미를 전달하는 복지사업이다. 행복 꾸러미 활동을 언니네 제철 꾸러미 활동과 병행하는데, 무안공동체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밑반찬과 국을 만들어 언니네텃밭 제철 꾸러미와 행복 꾸러미로 전달한다. 무안 여성 농업인 중에서 10여 명이 언니네텃밭 활동과 함께 행복 꾸러미 활동에 참여한다. 이 중에서 6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경면 일대 80세 이상 독거노인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주에 45명에게 격주로 반찬 꾸러미를 전달한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해요. 한 어르신께 배달하고 오는 도중에, 옆집 할머니가 계셔서 그냥 우연히 남은 꾸러미 한 개를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제 차 소리만 들리면 내다보세요. 그냥 손 한 번 잡아 달라고. 저는 줄 것이 없어 너무 미안하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손 한 번만 잡아 달라고 하세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할머니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내년에는 꼭 할머니도 넣어 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배달하면서 말 한 마디 건네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언니네텃밭 무안공동체 여성 농업인 면담 중에서)

먹거리를 전달하는 것이 행복 꾸러미 활동의 전부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서를 나누는 활동이기도 하다. 무안군 여성 농업인들은 언니네텃밭과 행복 꾸러미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논의한다.

“저는 (행복 꾸러미 대상자로)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을 추천했는데 동네에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랬다는 거죠. 저는 마을 분들을 잘 모르던 때라 이장님께 추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한 명씩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할머니들은 그래도 밥이라도 해 먹을 수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이런 것을 못한다. 할아버지 위주로 배달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들은 농사나 밥은 직접 할 수 있지만, 김치는 못 담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문제 때문에 식사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독거 할아버지를 방문해보니 청소와 위생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청소해 줄 수 있는 분이 할아버지 댁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도와주는 것이 할아버지 복지 문제 해결에 가장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언니네텃밭 무안공동체 여성 농업인 면담 중에서)

행복 꾸러미 활동은 공동체 일원에게 일정한 헌신을 요구하고, 언니네텃밭 꾸러미 사업에서 얻는 돈은 농업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하다.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개인들은 공동체 활동을 계속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동체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하는 생각에 무안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질문했다.

가장 큰 이유로 매주 모이면서 형성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꼽았다. 반가운 얼굴을 화요일마다 만난다는 기대감이 어려운 활동을 지탱하는 큰 힘이라고 한다. 각자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며 지역사회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존감 혹은 공동의 가치도





이유로 꼽았다. 무안 여성농업인센터를 이끌어온 장은이 센터장의 헌신적 노력과 추진력도 무안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다. 장은이 센터장은 자녀 셋을 키우면서도 무안군 여성 농민회 사무국장 활동과 센터장 역할을 병행했다. 여성 농업인의 가치와 활동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그녀의 책임감과 추진력이 무안공동체가 지속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센터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계획

센터는 문화 프로그램 및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생산 공동체 활동 등 자체 발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 농업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센터에 주어진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여 소중한 결실을 이루었지만, 지역사회 농촌·농업 주체들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최근 농업의 6차산업화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정부 정책 지원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를 이용해 여성 농업인이 환경 변화를 활용하는 역량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센터는 여성 농업인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다양한 전문 교육을 마련하려고 한다. 원예 지도사, 가죽 공예 등 여성 농업인에게 적절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등 농업 교육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일도 기대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 농업인에게 복지 서비스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역할을 강화하려면 센터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여성 농업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도 농업인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확대한다면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촌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문수 부연구위원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

- **사업목표** 여성 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등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촌 정착을 유도한다.
- **사업기간** 2002~계속
- **법적근거** 여성 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 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 미래

완주 고산향 교육공동체



농촌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둔 젊은 가족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은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자녀를 교육하기에는 농촌의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농촌의 자연환경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하며 농촌의 교육 환경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농촌 지역에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으려고 완주군 고산향 교육공동체를 찾았다. 고산향 교육공동체는 열악한 교육 여건을 지역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개선하고자 2011년에 조직한 거버넌스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고산향은 '향기 나는 고산교육공동체'의 줄임말이다. 지역사회가 나서서 학생들이 건강한 의식을 지닌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곳이다. 완주군 고산 지역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지역사회는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았다.



배경

지역 주민들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고 본격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이다. 학생 수가 줄어 고산면의 삼우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교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를 계기로 교사와 학부모들은 2000년대부터 전국 농촌 초등학교와 함께 ‘농촌학교살리기운동’에 동참하여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작은학교 교육연구회’를 만들어 농촌의 작은 학교에 적합한 교육모형을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2011년에는 삼우초등학교가 전라북도 최초로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교급식 개선 등 학교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지역 문화와 자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정착시켰다.

당시 고산 지역의 큰 고민거리는 중고등학교 공교육 여건이 미비하여 자녀를 둔 젊은 가족들이 전주시로 대거 이주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중학교 진학을 목전에 둔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들의 고민이 컸다. 자녀가 4~5학년이 되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는다면 전주시내로

주거지를 옮기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많았다.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에 고착된 고교 서열화는 농촌 지역인 고산면의 교육 환경을 질적으로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고산 지역사회는 초-중-고 연계 교육의 경로가 단절되어 열악해진 교육 여건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구태근, 고산초 전 교장, 고산향 교육공동체 백서 2011/2012). 고산면의 지역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주민들이 협력해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한편, 완주군청은 2010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읍·면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고산면도 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4개 분과를 구성해 참여하였다. 고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생태농업을 실천하던 율곡교회 여태권 목사, 삼우초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던 나영성 교장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주도했다. 지역 5개 학교 교장과 선생님, 학부모 등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던 이들도 참여해 고산면 장기발전계획의 교육·문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고산 지역 교육 거버넌스의 형성 : 고산향 교육공동체(2011-2014년)

2011년 5월부터 시작된 고산면 장기발전위원회의 교육·문화 분과 활동으로 고산 지역의 교육 주체들이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조직 체계를 정비하였고 ‘행복한 고산교육공동체’를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교육·문화 분과는 곧바로 교육 문제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다. 7월에 학생, 학부모, 선생님 등 1,039명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교육관, 교육 방향, 주제별 역할, 지역사회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이들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에도 교육 개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고산향은 고산 지역 5개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및 방과후 교육 활동의 개선, 지역사회의 재능기부 확대, 고산향 참여자들의 다양한 협력 활동 등을 중점으로 공교육을 개선하고자 했다.

2011년에는 ‘고산향 교육포럼’과 ‘고산향 교육한마당’ 등 대중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 전반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과 고산향 교육공동체의 취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교사 모임과 학부모 모임, 지역 교육 지원단 모임, 지역교육신문 발행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 중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 ‘고산향 교육공동체 학부모 교실’과 ‘고산 산촌유학센터 학부모 워크숍’ 등을 통해 자녀교육 철학 및 접근 방식, 자녀의 자아 형성, 자녀와 관계 맺기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2년부터 고산향 추진단이 구성되어, 고산향 실무 주체들이 실무위원회에서 체계적

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고산향 활동과 연계된 협력네트워크 또한 강화하였고, 고산향 집행위원회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지역 학교를 비롯한 일선 교육 기관과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들이 고산향 운영에 동참하거나 협력하도록 설득했다. 담당 교사, 학부모 대표자, 학생 기자단 모임 등 주체별 대표자 회의도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추진단은 지역사회에 고산향 활동의 이해를 구하고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고산향 교육포럼과 하반기 고산향 교육한마당 행사를 정례화 했다. 유아·초·중·고 교육과정 담당자 연석회의도 꾸준히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고산향 공통교육과정 마련,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미래 세대의 성장 단계별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했다.

당시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중간 지원조직인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주민들이 고산향 활동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과·제빵, 대안에너지, 청소년 기자학교, 영상·미디어, 농악·풍물 등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경험하게 하여 지역사회와 어린이·청소년 사이에 정서적인 친밀감을 높였다. 또한 고산향의 추진체계가 정비되면서 프로그램도 고산 지역 교사 만남의 날(2012년 3월 8일)과 고산향 교육포럼(5월 24일), 학부모 연합교육(7월 10일), 지역교육신문 발행(7월, 10월 호), 고산향 학생동아리 만남의 날(7월 11일, 9월 15일, 2회), 고산향 교육 한마당(10월 26일) 등으로 다양해졌다.

고산향은 2012년 4월, 한국여성재단이 추진하는 새싹 돌봄사업 교육공동체 공모사업인 '2012년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육사업'에 선정되어 1억 3,000만 원을 후원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후원금을 완주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교육공동체 '로컬에듀(Local-edu)' 운동과 고산향 활동을 연계하는 데 사용했다. 로컬에듀 운동은 교육청, 완주군청, 시민사회 단체 등이 협력하여 완주군의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활동의 시작이 되었고, 고산 지역이 로컬에듀 운동의 시범 대상지가 되었다. 로컬에듀 운동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배후 지원



활동으로 돌봄교실, 학부모 교육, 예체능 교육, 진로체험 등을 지원한다. 이 중에서 고산향은 방과후 교육과정을 담당하게 되었고, 2013년과 2014년에 농어촌희망재단의 공모사업인 농어촌지역 교육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지역 어린이 간식 마련, 생태문화기행, 역사문화기행 등 고산향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고산향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노력과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고산 지역 교육

거버넌스의 역할이 점차 확장되어 주민들 사이에 지역의 공교육을 개선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보건·복지

고산향 교육공동체의 위기와 새로운 도약(2015-2017년)

초기 고산향 활동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은 지역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업 교육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업 실행을 도맡았다. 특히, 학교 교장들이 고산향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다보니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집행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 교직자들이 고산향 활동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력 있게 운영하는 장점은 있었으나, 학부모와 학생 등은 단순히 활동을 보조하거나 부차적인 역할만 맡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고산향 실무를 총괄하던 박현정 사무국장에 따르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고산향 활동을 지역 학교 선생님들이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의 저변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활동 5년차에 접어들면서 2015년 후반부터 고산향 활동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고산향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긴 하였으나, 새로운 활동 주체가 늘어나지

사회적
농업



않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반복되는 활동들에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고산향 활동을 정체된 소수가 주도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초기 고산향 활동을 주도했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점차 퇴직하고 고산향의 실무 주체로 참여했던 선생님 중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고산향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고산향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 무렵 고산 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교육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진척되고 있었다. 특히 옛 삼기초교에 자리 잡은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는 사회적 허브로 자리 잡고 있었다. 고산미소시장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지리적 장소로서 역할을 하였다. 2015년 무렵부터 커지기 시작한 고산향의 어려움은 주민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고산미소시장의 네발요정카페에 모여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현재 상황을 타개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민들은 고산향 활동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공감하고 이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였다. 고산향 활동에 다소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방관자 입장을 취하던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자성의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고 일선 학교 선생님 중에서 새롭게 실무 주체로 참여하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새로운 활동 주체를 유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고산향은 주민의 관심, 성찰,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산향의 어려움은 공동체 활동가를 비롯한 지역 사람들의 걱정, 배려, 동참을 연결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과 교류는 활발해지고 고산 지역의 사회적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2016년부터 고산향은 기존 활동을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고산청소년센터와 협력하며 활동 범위를 확장하였다.

●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

2017년 5월 출범한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센터는 고산초, 삼우초, 고산중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100%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고산고는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미래 세대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돌봄,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부모, 완주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주민들이 방과후 교사로 참여하도록 연결하고 있다.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진로·직업 체험, 지역사회 이해, 학부모 교육, 학교 밖 청소년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명의 행정 실무자를 고용하고 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아이들을 위해 강사로 활동하며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 고산청소년센터 '고래'

현재 고산청소년센터가 입주한 곳은 당초 완주군에서 문화예술촌으로 만들고자 미곡 창고를 리모델링하였던 곳이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2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던 곳이다. 주민들은 완주군청에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군청도 주민들이 그곳의 활용 방안을 찾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협조하였다. 고산향은 학부모와 청소년이 모임을 지속하면서 이 장소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논의하도록 지원하였다. 이곳은 현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여 운동, 영화감상, 노래방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7월에 개관한 고산청소년센터 '고래'는 완주군청이 직영한다. 청소년들이 문화 체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돌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고산청소년센터의 이름인 '고래'는 '고산의 미래' 또는 '오래된 미래'라는 뜻이다. 청소년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안전하게 머무르는 공간,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는 공간, 마을과 세계를 함께 상상하는 공간,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이념을 담았다. 김주영 센터장에 의하면, 고래는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의 개념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고래에서는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는 프로젝트들이 여러가지 진행되고 있다. ‘무모한 공작단’, ‘여행 프로젝트’, ‘고래 아카데미’, ‘미지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다. ‘무모한 공작단’은 청소년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지역사회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다. 청소년들은 화단 만들기, 벽화 그리기 등의 작업에 참여하며 지역과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장소 만들기를 실습한다.



‘여행 프로젝트’는 고산 지역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해 문화를 경험하도록 기획되었다. 인문지리학 강의와 워크숍이 다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장소를 깊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고래 아카데미’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조직·단체들의 도움을 얻어 인문학 강연, 마을 탐방, 생활기술 워크숍 등의 활동을 체험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다. ‘미지수 프로젝트’는 영화 제작, 잡지 제작, 아두이노 제작과 프로그래밍 등을 가르쳐 미디어 소통 방식을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센터의 올해 활동 방향은 청소년 서로의 관계 형성,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친밀감 형성을 돕는 것으로 세웠다.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청소년과 함께 놀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센터에 와서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는 봉사자, 간식의 식재료를 제공하는 농업인 등 지역사회의 관심, 참여, 자원이 모이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 고산향의 다양한 활동

고산 지역 학생신문 YE-YE 고산초교, 삼우초교, 고산중, 고산고, 전북푸른학교 등 고산 지역의 학생기자들이 모여 만든 청소년 신문인 ‘YE-YE(Your Eyes Your Ears)’는 ‘고산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지역 공동체의 눈과 귀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신문 기자 출신의 전문 강사로부터 기사 쓰기와 이론 인터뷰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받으며, 지역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발굴하여 기사화하고 있다. 2012년 7월 창간호를 낸 이후, 꾸준히 발간해 오고 있다.

지역과 함께 하는 캠핑 2015년 9월, 삼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주도하여 고산 지역 5개 학교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캠핑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후 매년 지역 학교의 학부모회가 번갈아가며 캠핑 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한다. 캠핑 행사 등 고산향 활동에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학부모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늘어났고, 특히 타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이 많은 삼우초교와 다른 학교 학생·학부모 간 교류가 늘게되었다.

동삼이몽 동삼이몽은 ‘동네 삼촌 이모들이 꾸는 꿈’의 줄임말이다. 지역 교육에 관심 있는 귀촌인들이 각자 동네 청소년의 멘토가 되어 돌보는 자발적 활동에서 출발했다. 이들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상담사는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하고, 지역신문 기자는 잡지와 영상물 등 지역 매체를 함께 만들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도 고산 지역 청소년의 멘토로 활동한다. 목수 일을 하는 삼촌 3명은 청소년들과 플레이하우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고산향 교육공동체의 시기별 주요 활동

기간	주요 활동
2010.11	고산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발전위원회 발족
2011.5	장기발전위원회 내 교육분과위원회 구성(여태권 위원장)
2011.6	지역실태조사 수행
2011.7	제1회 고산향 교육공동체 포럼 개최
2011.11	제1회 고산향 교육공동체 한마당 개최
2012.3	고산향 교사 만남의 날: 지역 5개 학교 교직원 및 지역 교육관련 인사 모임, 사업 설명
2012.4	한국여성재단 새싹 돌봄사업 교육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1억3천만원 후원)
2012.5	제2회 고산향 교육포럼 개최
2012.7	학부모 연합강좌, 고산향 청소년신문'YE-YE' 창간
2012.10	제2회 고산향 교육공동체 한마당 개최
2012.11	고산향 교사단 모임
2013.2	고산향교육공동체 백서 발간
2013.5	농어촌희망재단 농어촌지역 교육활성화사업 공모 선정(2천만원) 고산향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고산초중고교 학생 대상 자전거 생태기행 개최
2014.5	농어촌희망재단 후원(2천2백만원)
2014.6	고산향교육공동체 인문학강좌 개최
2017.2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
2017.7	고산청소년센터 '고래' 개관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전국의 공사판을 누비던 목수들이 고산의 청소년들과 정이 들어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 청소년들은 삼촌들과 협업하면서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청소년과 정이 들게 된 어른들은 2017년 동삼이몽이라는 공동협력조직을 결성하였다. 청소년의 멘토가 되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돌봐 왔던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 논의장을 만들어 청소년을 돌보는 방향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고산향 활동의 성과와 과제

고산향은 출범 초기부터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교육 거버넌스를 형성했다. 여러 세부사업을 추진력 있게 전개하면서 농촌의 교육 문제를 협력적으로 풀어왔다. 물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으나, 오히려 고산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고산향 활동이 지역사회에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리더들이 지역 공교육을 개선하자는 초기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적 대응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초·중·고교 교장들이 초기부터 고산향 교육공동체에 깊이 관여하고 실무 주체로 활동하면서 계획이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2010년부터 완주군에서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교육 주체들이 민·관을 넘나들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협력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넷째, 지역사회 교육의 위기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였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사회적 경제,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실천들이 지역 교육운동과 결합되었고, 지역의 문화·역사·생태 자산들이 지역교육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활발해진 고산향 활동의 성과도 짚어보았다. 첫째, 참여자들이 고산 교육에 공동된 청사진을 그렸다는 점이다. 둘째, 영·유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셋째,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교육여건을 개선 할 체계를 갖추게 된 점도 큰 성과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주민이 각자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역할을 맡고, 또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고산향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고산향의 이러한 가치관과 활동들이 앞으로 전국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에 영감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해 본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문수 부연구위원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 내 고향 두원마을



농촌의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여정이다. 진안군 두원마을은 진안군 그린 빌리지 사업의 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행복 마을 콘테스트 전라북도 대상 및 전국 경관 부문 은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곳이다. 두원마을 사람들은 과연 어떤 노하우로 마을을 가꾸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역사회의 배경

두원마을은 전북 진안 고원에 위치한 해발 400m의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다.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섬진강 발원지(데미샘)가 있는 청정 마을이다. 풍수적으로는 금계포란(金鷄抱卵, 황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의 형상으로 주변 산지가 마을을 포근하게 둘러싸고 있다.

마을의 옛 어른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액운을 막고자 마을초입의 길에 악귀를 막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의미의 진택(鎭宅)거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마을 숲과 솟대를 만들었다. 지네 형상을 하고 있는 앞 마을과 불화를 막으려고 냇가를 따라 느티나무를 심기도 했다. 그 결과였을까.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에도 마을은 화를 전혀 입지 않았다. 예로부터 마을을 아끼고 지키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길을 따라 동네로 들어가다 보면 마을 한 가운데 1610년경 광해군 치세에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400년 묵은 당산나무가 있다. 1958년, 주민들은 당산나무 아래에 모정을 짓고 태화정(泰和亭)이라 불렀다. 크게 화합한다는 뜻이다. 주민들이 직접 이름을 지었다. 1960년대 이전엔 350여 명이 넘게 모여 살며 번영했던 마을이었다.

이 마을도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거 풍요로웠던 마을이 노인만 지키는 마을로 쇠락하는데 채 30년이 걸리지 않았다. 마을이 존폐의 위기를 겪었던 2006년, 주민이라고는 노인 25명이

전부였다. 연세가 가장 적은 이가 65세였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마을 자체가 사라질 지경이었다.

그러던 중,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이 각광을 받던 2007년부터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마을에 귀향하려는 이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 한때 마을을 떠났던 이들에게 두원마을은 언젠가 돌아와야 할 고향이었던 것이다. 1985년에 결성된 재경향우회는 출향민 사이의 인연을 계속 이어주었고, 매년 칠월의 칠석 잔치로 마을 주민과 출향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두원마을에 사는 42가구 중 절반이 넘는 30가구가 귀농·귀촌가구이며, 그 중 고향을 찾아 복귀한 주민이 17가구이다. 마을 이장인 김용태 씨도 타지에 살다 귀향한 주민이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쇠락한 마을을 다시금 살려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귀향을 해보니 비포장도로에 하천도 엉망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쇠락의 길에 놓인 마을이라고 보면 딱 좋은,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살았던 곳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해져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마을을 가꾸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두원마을 김용태 이장)



마을 만들기의 시작, 내 고향을 가꾸자

2010년 귀향한 주민 10가구가 한자리에 모여 마을을 되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함께 모인 주민들은 마을 만들기의 원칙을 세우고 2020년까지 10년 간 추진할 마을 계획을 세웠다.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활동은 마을 입구에 꽃길을 조성하는 일이었다.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10여 곳의 마을을 견학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마을 가꾸기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나고 자랐던 고향의 쇠락한 모습에 너도 나도 마음이 아팠을 터, 어느 누구의 강요도 없었지만 발 벗고 나서 꽃길을 가꾸는 데 동참하였다. 물론 주민 모두가 이러한 활동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보다 콩이라도 심어 소득에 보태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꽃길 가꾸기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 일이 마을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묵묵히 작업했다. 활동은 2년 동안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진안군에서 추진하던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다. 진안군청의 협조 하에 스스로 이어오던 마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2012년 1단계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군청에서 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으로 마을 입구에 조성한 꽃길을 마을 안길과 연결하였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당시 마을 남자 15명은 트랙터와 경운기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1km 남짓한 마을 진입로의 축대공사를 40일에 걸쳐 수행했다. 이후 부녀회에서 꽃길을 조성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일이다.” (두원마을 김용태 이장)

이 활동으로 마을 분위기가 화사하게 바뀌었고 주민들도 뿌듯함을 느꼈다. 두원마을은 당해 그린 빌리지 사업에 참여한 마을 중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다. 당시 상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은 주민들의 합의하에 사라진 마을 냇가의 물레방아를 복원하는데 활용하였다. 이처럼 두원마을의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고 지자체의 도움으로 체계화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설정한 첫째 목표인 ‘마을을 과거처럼 보기 좋게 가꾸는 일’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013년 두원마을은 진안군의 2단계 마을 지원 사업인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여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주민들은 지원금으로 마을회관 앞에 꽃탑과 체육공원을 조성하였다. 마을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주민 모두가 꽃탑 조성 공정에 참여하였다. 진안군청은 두원마을을 또다시 우수마을로 선정했다. 이러한 성과로 3단계 마을 지원 사업인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마을총회를 거쳐 당시 지원받은 4,300만 원의 예산을 절임배추공장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으로 경관사업이 아닌



그린빌리지 사업
- 꽃길 만들기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 꽃탑 및 체육시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 절임배추공장

자료: 김용태 이장

소득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자재를 고르는 등 숨씨 좋은 주민의 주도하에 절임 배추공장을 건립했다. 처음에는 공동 작업 용도로만 활용했지만, 현재는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절임배추를 포함하여 된장이나 고추장 등 주민이 직접 식품을 가공하는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마을 만들기의 성공, 마을에 활력이 생겼다

두원마을 주민들은 진안군의 지원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마을의 상징인 당산나무를 주민들의 힘으로 살리기로 했다. 과거 새마을운동으로 마을 안길을 포장하면서 당산나무 주변에 많은 양의 콘크리트가 덮였다. 겹겹이 쌓인 콘크리트 때문에 나무는 점점 활력을 잃고 있었다. 2012년 주민들이 합심해 덤프트럭 8대분의 콘크리트를 제거했다. 그 후 당산나무는 다시 활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당산나무는 군청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 말끔히 관리되고 있다.

2015년에는 ‘재능나눔캠프’를 진행했다. 재능나눔캠프는 대학생들이 며칠 간 마을에 머물면서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마을 경관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그 일환으로 노인회의 자문을 받아 과거에 있었던 솟대를 복원하였다. 솟대는 마을의 액운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염원하는 뜻으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복원하였다.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졌다. 원광대 건축학과 학생들과 연예인봉사단 등 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12일 간 낡은 주택 6채를 재정비하였다.



2014년부터 진안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쓰레기 3NO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쓰레기 3NO 운동은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땅에 묻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다. 마을에 재활용 동네 마당(클린 하우스)을 설치하여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쓰레기 규격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 의식을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쓰레기를 묻거나 태웠던 어르신들에게 분리배출이 쉬울 리 없었기에 처음엔 관리가 힘들었다. 이때 김 이장 내외가 앞장섰다. 마을 주민에게 쓰레기를 클린 하우스 앞에 가져다 주기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클린 하우스 앞에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쓰레기만이 아닌 아무데나 버려진 쓰레기 또한 수거해 매일 직접 분리수거하며 시설을 꾸준히 관리했다. 결과적으로 마을이 점차 깔끔해졌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도 조금씩 개선되었다. 그 결과 군에서 진행한 사업 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진안군 마을 만들기 3단계 지원 사업까지 성공리에 수행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마을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선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일이었고,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복잡한 협의 과정이 필요한 일이었다. 마을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공동체 활동을 수행해온 경험을 통해 주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한 일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던 ‘현장포럼’이다. 현장포럼은 주민 간 차이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깨닫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화합의 장, 소통하는 두원마을 사람들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해 본 경험 없이 선불리 사업 예산부터 지원받으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마을 지원 사업이 끝나면 주민의 활동도 함께 멈추는 경우가 많다. 두원마을은 주민이 주도한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마을 경관 가꾸기에서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 가는 방식을 배우고, 내부 인적 역량을 강화시킨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마을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조정해 가는 과정을 통해 화합의 장,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0년 마을을 가꾸기 시작했을 무렵 마을 어르신들은 저희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동네 일에 함에도 불구하고 동네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게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마을이 활기차고 좋은 모습으로 변모하자 우리를 인정해주셨죠. 지금은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신답니다.”

(두원마을 김용태 이장)

이러한 마을의 활동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 마을추진위원회 결성에 참여한 주민 10명이 주축이 되어 시작하였다. 마을추진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주민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는데, 대략 한 달에 세 번 정도 모임이 있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방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공지하기도 한다.

“우리는 회의를 정말 잘해요. 사업을 진행하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회의를 하고 회의 시간과 날짜 등을 문자와 방송으로 알립니다. 추진위원회를 포함하여 주민이 함께 모여 각자의 의견을 가감 없이 말하죠. 거의 그럴 일이 없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을 해요.” (두원마을 김용태 이장)

체계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장포럼의 역할이 컸다. 2015년 5차 현장포럼을 거친 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었고, 마을회의도 정례화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각자의 의견을 스스로없이 제시하면서 토론을 잘 진행했던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회의에 익숙하지 않아 어색해하거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도 했다.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언 기회를 주면서 토론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마을이장의 노력이 있었다. 이로 인해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갈등도 주민 간의 대화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두원마을 공동체, 자발적인 힘의 근원

두원마을 주민의 화합과 참여 문화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두원마을은 칠월 칠석에 주민과 출향민이 더불어 잔치를 열어 온 전통이 있다. 예부터 꾸준히 전해진 것으로,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지도 않았고 딱히 프로그램이나 주제가 명확하지도 않다. 그저 칠월 칠석이 되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일이 습관처럼 굳어졌다.

칠석 잔치는 당산나무 아래에서 당산제를 열어 참여한 모든 이들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하며 시작된다. 이를 미신이라며 언짢게 여기는 이들도 있어, 최근에는 굿을 하지 않고 제의의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당산제로 시작된 칠석 잔치는 마을회관 마당에서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두원마을의 품물동아리인 백운농악단이 농악을 한바탕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흥을 내기 시작한다. 이 날만큼은 주민과 출향민이 마을 정자인 '태화정'에 둘러 앉아 담소를 나눈다. 이런 경험이 꾸준히 누적되어 주민 사이에 끈끈한 정을 만들고, 마을 일에 단합할 수 있는 신뢰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두원마을 주민이 화합을 잘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재경향우회의 노력을 꼽을 수 있다. 출향민 들은 향우회를 통해 마을의 애경사에 함께 모이기도 하고, 혹은 타지에서 서로 안부를 전하며, 출향민 사이의 우애도 유지한다. 재경향우회를 통해 출향민들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들으며 마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향으로 복귀하는 주민들이 많아졌고 고향에 재정착하는 과정 또한 용이하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마을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마을을 가꾸는 데 앞장섰고, 두원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용태 이장은 이장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로 결심한 동기를 마을 모정의 이름인 '태화정'에서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동네를 보살피는 이장의 임무가 '태화(泰和)', 즉 커다란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 보았고 마을 주민 중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화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이를 위해 마을소식지 발간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소식지는 2015년부터 격월로 꾸준히 발행해 오다가 정간되었는데, 2017년부터 재발간하고 있다. 마을소식지 발간위원회는 이장을 비롯하여, 노인회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등 마을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향우회원과 일부 마을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마을소식지는 마을의 주요 행사 일정과 공지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전입과 전출, 집들이, 애경사 등 마을의 일상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칠석잔치가 열리는 날, 전주시 중앙동 주민들을 초대하여 자매결연을 맺었다.



지금까지도 전주시 중앙동에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심진강 하류에 위치한 하동군 목도마을과도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의 지역축제에 초대하는 등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두원마을의 성과와 과제

두원마을의 마을 만들기가 성공사례로 소개되면서 여러 마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15년에 2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지금도 한 달에 6~7팀이 마을을 방문한다. 어느덧 외부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마을 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되었다. 두원마을 주민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을 발전을 위한 일을 다양하게 찾아 계획을 세우고 있다.

“7~8년이 지난 지금, 그때 세웠던 계획을 돌아켜보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을의 원칙을 세웠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원칙이라 함은 빨리 가지 않고, 합의 후 실행한다.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예요.” (두원마을 김용태 이장)

두원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성수산까지 약 5km 이어진 하천과 마실길을 복원하고, 중간 중간에 산재한 전통 자원을 복원할 계획이며, 산책로 곳곳에 작은 쉼터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목표다. 2012년부터 마을 소유 산지 10ha에 편백나무를 심어 꾸준히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곳에 야생초 탐방로를 조성하고, 마을 축제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예정이다 있다.

두원마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마을 소득과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2020년까지 2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여 순소득 1억 원을 올리겠다는 당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앞으로 두원마을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지숙·민경찬 연구원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현장포럼 지원)

- **사업목표**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등을 통해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 **사업기간** 계속
- **법적근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1조

농촌관광의 새로운 실험 강진 푸소 체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체험마을, 농어촌 민박, 관광농원 등 농어촌 관광경영체를 육성하고, 관광두레와 같이 주민 중심의 지역 단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지역단위 관광시스템 구축’ 사업은 농어촌 지역 내 다양한 관광 자원과 경영체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청은 ‘지역단위 관광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푸소(FU-SO)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푸소(FU-SO)체험 프로그램은 지자체, 전문가, 지역 내 농어촌 관광 경영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꾀한 사례이다. ‘푸소(FU-SO)’는 필링-업(Feeling-Up),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덜어내시오’라는 뜻의 전라도 방언이기도 하다. 푸소 체험은 시골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농촌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학생을 비롯하여 단체 여행객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였고, 다양한 농어촌 관광 경영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푸소 체험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각자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숙박, 체험, 식사 등 가능한 영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진군청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참여 농가를 선정하여 역량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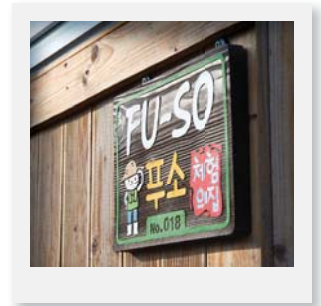
강진군은 농경지가 29%, 산림이 58%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면서 남도답사 1번지라 불리는 만큼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조선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인물 하멜이 7년 간 머물렀던 전라병영성,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생활을 했던 사의재, 천년을 이어온 고려 청자의 생산지,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유명한 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이 태어난 영랑생가가 남아 있다. 전남 3대강의 하나인 탐진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월출산, 남쪽에는 쪽빛 바다가 펼쳐져 있어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렇게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의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9년 약 469만 명이었던 강진군 관광객 수는 2012년 429만 명, 2014년 28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다른 농어촌 지역처럼 인구 고령화와 배후 지역의 과소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로인한 여러 이유로 지역 농어가들의 소득 기반도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강진군은 지역 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따른 성과를 농어가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푸소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도입하게 되었다.

전개 과정

강진군은 농가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6년 강진군 농업기술 센터에서 녹색문화대학이 설립되었고,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관광 과정이 개설되었다. 농촌관광 과정에서는 매년 일본의 우수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연수를 진행하여, 연수의 일환으로 일본 오이타현의 아지무(安心院)정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진행하는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활동에서 푸소 체험의 아이디어를 얻어, 연수생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푸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5년 초에 푸소 체험에 참가할 관광 경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강진군청의 문화관광과와 녹색문화대학 농촌관광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평가단이 구성되었다. 면사무소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관광 경영체를 추천 받아 시설, 경영 역량 등의 자격을 갖춘 지역 소재 농촌 관광 경영체 120곳을 선정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교육 기관을 활용하여 안전, 위생,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40개의 경영체가 푸소 체험 최종 참여 경영체로 선정되었다.

이후, 강진군청에서는 지역 내 관광 거점과 참여 경영체를 연계하는 1박 2일, 2박 3일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5년 말부터 강진군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상대로 푸소 체험을 시범 운영하였다. 강진군 주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면서, 대상과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나갔다.

푸소 체험은 연중 운영되며, 체험 프로그램은 강진군의 관광자원, 참여 농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민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푸소 체험 코스는 청자박물관, 시문학과기념관 등 지역 내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농가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숙박은 농가에서 이루어지는데, 푸소 체험의 주요 참여 대상인 단체 관광객은 여러 농가 민박에 분산되어 숙박한다. 1박 2일과 2박 3일 코스로 운영되며, 2박 3일 코스에서 둘째 날의 모든 일정은 농가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농가들이 2~3일 일정에 걸친 모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식사까지 제공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개별 농가가 전체 일정의 일부 시간을 책임지고 운영하면 기존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농가들도 부담 없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푸소 체험 여행객이 강진군에 방문하면, 코스에 따라 권역별 최초 집결지로 이동하고 간단한 안내와 교육을 받는다. 농촌 마을에 머물며 지역 주민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역 및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마을에 머물며 지켜야 할 태도와 예절에 대해서도 배운다. 교육을 마친 후, 강진군에서 파견한 안전요원과 문화해설사가 동승하여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농가 민박 가정으로 이동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푸소 체험에 참여하려면 학교나 지역별 여행사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신청해야 한다. 푸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학교 및 여행사와 강진군청이 계약을 체결해 결정하고, 농가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비용(체험비, 조식비 등)은 강진군청에서 농가에 지급한다.

농가 체험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농가의 특성과 여건이 반영되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바다와 가까운 농가에서는 갯벌체험, 화훼 농가에서는 꽃다발 만들기 체험, 강진된장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장 담그는 체험을 한다. 이 외에도 밤하늘의 별 보기, 다도체험, 새끼줄 꼬기, 창호지 바르기 등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체험이 아닌 매번 다른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푸소 체험 프로그램 2박 3일 코스

구분	시간(분)		주요내용	비고
1일차	10:00~12:00	120'	영랑감성학교 - 인문학적 감성프로그램(오페라, 연극등) - 청자접시 꿈 새기기(1인 8,000원)	기본프로그램
	12:00~12:10	10'	식당으로 이동	
	12:10~13:00	50'	중식	자부담
	13:00~13:20	20'	식당 → 가우도 이동	
	13:20~14:20	60'	가우도 함께해(海)길 트레킹	
	14:20~14:30	10'	가우도 → 청자박물관 이동	
	14:30~15:30	60'	청자박물관 - 박물관 관람/청자조각 체험	체험 종류에 따라 다름 (선택사항)
	15:30~16:30	60'	민화뮤지엄 - 박물관 관람/민화 체험	*체험별 상이
	16:30~17:00	30'	박물관 → 종합운동장 이동	
	17:00~17:10	10'	푸소체험 농가와 인연 맺기	
	17:10~17:30	20'	종합운동장 → 푸소체험 농가 이동	농가차량
	17:30~18:00	30'	푸소체험 농가 둘러보기	
	18:00~20:00	120'	푸짐한 시골 외할머니 음식체험(석식)	
20:00~22:00	120'	농가와 추억 만들기(야간체험)		
	22:00~	취침		
2일차			농가에서의 하루	
3일차	07:00~08:00	60'	기상 및 개인정비	
	08:00~09:00	60'	외할머니 시골밥상(조식)	
	09:00~11:30	150'	농가체험	
	11:30~12:30	60'	푸짐한 시골 외할머니 음식체험(중식)	
	12:30~13:00	30'	푸소체험 농가 → 종합운동장 이동	
	13:00~		종합운동장 → 학교	집결지

※세부 일정은 강진군과 협의 조정 가능함

강진군에서는 푸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려고 체험 콘텐츠뿐만 아니라, 참여 농가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소 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참여 농가는 지속적으로 농촌 체험, 관광, 숙박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강진군에서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오토바이 열쇠나 위험한 물건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기), 위생교육(음식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 성교육(학생들이 예뻐도 불편한 스킨십 금지), 체험교육(다도체험, 한지공예 등)을 실시한다.

강진군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인근 지역인 광주, 전남 소재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푸소 체험을 홍보하였고, 금년은 언론사를 활용하여 홍보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진군은 전국 21개의 여행사와 협약을 맺고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해당 여행사를 통해 푸소 체험을 상품화 하여 판매하면서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푸소 체험 프로그램과 참여 농어가들의 숙박 정보 등을 담은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푸소 체험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푸소 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푸소 체험 농가들은 교육 일정에 따라 모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2017년 푸소 체험연구회가 결성되었다. 푸소 체험연구회는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푸소 체험 농가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운영되고 있다. 농가들은 연구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학습을 진행한다.

푸소 체험의 성과와 전망

푸소 체험은 2016년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80여 개의 학교와 단체에서 총 6,97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농가의 총 참여횟수는 1,638회로, 푸소 체험 농가당 2016년 평균 참여 횟수는 13회를 상회한다. 2017년 상반기에 이미 학교와 단체 63여 곳이 참여하였고 참여 인원은 7,001명으로 작년 한해 방문자 수를 초과하였다. 방문하는 단체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직장인 동호회, 외국인, 공직자 교육·연수생, 가족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푸소 체험은 강진군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고 관광의 활성화에 따른 성과가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 창출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강진군은 다양한 문화 및 역사 자원과 훌륭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 남도 여행에서 잠시 들렀다가 지나치는 코스에 머물렀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지만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관광 산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주요 관광 자원이 특정 문화 및 역사 장소에 편중되어 일반 농가의 소득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은 강진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강진(康津)’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600주년이 되었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시절 3대 저서인 ‘경세유표’를 저술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 강진군이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지 40주년이 되었다. 강진군은 2017년을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강진군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중심에 푸소 체험이 자리하고 있다.

푸소 체험은 2017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지역단위 농촌 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동 사업을 통해 브랜드 콘텐츠 개발, 플랫폼 구성, 네트워크 조직화 및 교육, 여행비용 일부 인센티브 지원 등의 추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처음엔 강진군청이 주도하여 초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지만 앞으로 참여 농가가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푸소 체험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모객과 운영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방문객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장기적으로 참여 농가들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자생력 있는 지역단위 농촌 관광 경영 모델을 확립할 예정이다.

시사점

지자체와 주민이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적절히 역할을 분담했기에 푸소 체험이 단기간 내에 지역의 농촌 관광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푸소 체험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하거나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농가가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더하는 확장형 프로젝트이다. 지자체는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 농가 대상의 교육을 담당하고, 참여 농가들은 지자체를 신뢰하는 가운데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자체는 농가들의 생업 일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주 푸소 체험 참여 농가들을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한다. 참여 농가도 지자체와 연구회가 주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하며, 지자체를 믿고 일정을 잘 따르고 있다.

푸소 체험은 개별 경영체가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농촌 관광의 성공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민간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 전반을 주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운영 주체를 농가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강진군의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푸소 체험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참여 농가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확산되려면 지자체와 농가, 지원기관 등 지역 주체 간의 협력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농가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부연구위원, 정희라 연구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 **사업목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주민소득을 높인다.
- **사업기간** 2010~계속
- **사업규모** 시·도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
- **법적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농교류촉진법

함양군 특화산업, 농민 창업의 길을 열다

함양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에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는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은 농업소득을 보완하는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업인의 가공 관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공 활동을 시도하기 어려운 개별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농산물 종합 가공 시설을 확보한 후, 가공 관련 시설·장비 운영 인력을 배치하여 농업인들의 가공 활동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가공 부문의 사업화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 시설 투자와 설비 등록·운영 과정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초기 부담을 줄여주고 가공제품 생산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농산물 가공 부문 창업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 지원’ 사업은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에서 창업이나 가공활동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에 특화된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표준화하고, 컨설팅 등을 수행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사업은 가공 시설 설치, 포장재 개발, 유통 개선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품질 개선, 기술 교육, 벤치마킹 등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7년 삶의 질 시행계획에서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39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농업 기술센터 34개소에 대해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사업을 실행 중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 역량 강화, 전문가와 연계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의 현장 기술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함양군 일반 현황

함양군은 경상남도 서북단에 위치하며, 남쪽에 지리산을 두고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농업에 불리한 산간지역이며 농경지 면적이 작다. 지역 내 고도차에 따른 지리적 다양성 때문에 여러 작물들이 재배된다. 특정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주산지를 형성하지 못했고, 특화 작물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농산물을 가공해 소득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역 농업인,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공통 관심사였다.

함양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는 다른 지역의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성과 분석에 따르면, 2014년~2015년 함양군의 가공 부문 신규 창업 농가 수는 총 58가구였다. 다른 지역의 신규 창업 농가 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2014년~2015년 지역별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의 신규 창업농가 현황

	식품제조업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	유통판매업	기타	합계
가평	1				1
공주	3				3
군산	2				2
금산	2				2
논산	2				2
삼척	1				1
영광	2				2
원주	2			1	3
의령	4				4
의성		1			1
장성	9			2	11
장수			1		1
정선			4		4
제천	2			1	3
칠곡	4				4
함양	56		1	1	58
횡성	3				3
합계	93	1	6	5	105

자료 : 농촌진흥청, 2016, 농식품의 6차 산업화 지원사업 성과분석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함양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 사업 추진

함양군은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이다. 2010년부터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들여 농업인의 창업 자본 부담을 낮추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건립하였다. 함양군 가공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특성과 지역 농업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가공 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1년 6월, 함양군 가공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전처리실, 습·건식 가공실, 위생전실, 포장실 등 가공·유통 시설을 집적하였다. 농산물 가공, 유통, 분석에 활용되는 45종 50점의 장비를 구축하여, 지역 농업인의 가공·유통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2016년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위치로 이전한 후, 매년 군비 9천만 원을 지원 받아 가공센터의 운영·관리와 농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공센터의 운영은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직원 2인을 포함하여, 총 3인이 담당한다.



● 농업인의 공동 가공 시설 활용 및 기술 지원

2011년 개소 이래로, 2016년까지 총 668명의 지역 농업인이 976회에 걸쳐 농산물을 가공·상품화하고자 가공센터를 이용하였다. 2016년에는 총 82개 농가가 가공센터의 제조·가공 시설을 활용하여 차좁, 농축액 제조, 저온제습건조, 레토르트 살균, 동결 건조 등을 했다.

가공센터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공하고 싶은 농산물이 가공센터의 시설·장비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담당자와 논의한 후 이용하도록 했다. 가공센터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이용하고 싶은 농업인은 시설·장비 운영에 관한 주의사항, 위생 관련 사항을 미리 교육 받는다. 가공센터는 해당 농업인에게 가공품 관련 기술 개발이나 성분 분석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비자 반응 조사 같은 사후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공센터 시설은 농업인들의 가공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자체 가공식품 개발에도 활용된다. 2016년에만 총 32건의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지역 식품기업이나 농가에 이전했다. 또한 센터는 상표 출원 6건, 13개 업체에 대한 상표 등록 13건, 특허 등록 7건 등 기술개발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 농업인 교육 및 창업보육

함양군 가공센터는 지역 농업인에게 가공·시설 장비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와 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도 지원한다. 가공센터 활동 초기인 2010년부터 창업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10년 ‘농산물가공 창업소양교육’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12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총 507명의 함양군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창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가공 제품 개발, 생산 기술과 관련한 실습,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 등으로 구성된다. 농업인의 창업과 가공 사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은 철저하게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기타 관련 공공 기관을 통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프로그램은 농사 일정을 고려해 10월 이후에 운영되며, 교육 인원은 프로그램별로 25명 내외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40~50일 동안 10여 차례의 수업으로 구성되고, 연간 1~2회 정도 운영한다.

센터는 교육 외에도 농업인의 조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다양한 가공 관련 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농업인은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아이템, 제품 구상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는다. 창업 이후 단계의 농업인에게는 사업화 방안과 성장 단계별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즉 창업 이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공센터가 개관한 이후 연 100여 건 정도 상담과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은 다방면의 전문 지식을 연계해야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제한된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과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외부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 농가 대상의 창업교육, 시제품 생산, 농가 지도와 관련된 교육 개선을 위해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전문적인 인력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농경문화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마케팅 및 판매 지원

가공센터는 지역 농가와 법인이 개발·생산한 제품의 판매·마케팅 지원 활동도 꾸준히 수행한다. 가공센터를 통해 생산된 가공식품 등 지역 상품은 함양군에서 제작한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영세 농가에게 포장재를 지원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마케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농업·농촌 6차산업박람회,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산삼축제, 바이어초청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지역 상품의 판촉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5년에 25개 업체가 판촉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함양군 농식품 전시관에서 바이어 상담을 통해 총 112회의 판매 관련 상담이 이루어졌다.

함양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성과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사업 지원은 2010년~2011년에 이루어졌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 가공센터 개관 이후 농업인 대상의 가공 기술 지원 및 창업 보육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가공센터 개관 이후 현재까지 창업 농가는 총 150가구이며, 21개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0개소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지정 업체이다. 2016년에만 4개 법인이 창업하였으며, 8개 농가가 새롭게 가공 상품을 출시하였다. 가공 기술 및 창업 지원은 사과, 양파 등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액즙류와 차류·장류 제품, 가양주, 한과·떡 등 다양한 식품 개발 방향과 연계되어 있다. 개발된 식품은 에너지바, 쿠키, 약과, 홍삼엑기스, 햇개나무진액, 여주즙 등 다양하다. 2016년까지





11건의 시제품 개발과 상품화 지원 실적이 있었다. 생산된 제품은 외식식자재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공영홈쇼핑, 농협 등의 유통채널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함양농식품홍보관에서 판매하고 있다.

2016년 21개 사업장의 매출액은 2015년 대비 8% 증가한 22억 3천만 원이었다. 오디즙, 한과, 양파즙, 장아찌 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았다. 농촌진흥청의 분석 결과 339명의 일자리가 지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함양군의 제조·가공 업체들 사이에 협의체가 만들어져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도 또 다른 성과이다. 함양군 가공센터는 초기 협의체 결성 과정을 지원했다. 현재는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7개 업체가 함양군농산물가공협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업체 간 정보 교류, 공동 브랜드 사용, 박람회와 전시회를 통한 공동 마케팅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와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에서 여러 번 수상하였으며, 2017년에 공동 브랜드인 '더 함양'이 소비자 평가에서 최고 브랜드 대상(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을 수상하였다.

시사점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과제의 농산물가공창업기술지원 사업은 지역별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와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농업인 가공 제품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함양군 가공센터가 성과를 창출했던 요인으로 지자체가 센터를 활용하여 지원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공센터 건립과 가공 시설·장비 구축 등 2년 간의 하드웨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함양군은 지자체 예산(연 9천만 원)을 편성하여 가공센터 운영과 농업인의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및 가공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 2인을 고용함으로써 센터의 성과 창출에 기여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 사업을 가공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한 것도 성과 창출의 또다른 요인이다. 가공센터를 중심으로 '농촌 지도 장비 지원 사업', '농공상 융합 모델 개발 사업', '전통 발효 미생물 종균 보급 시범 사업' 등 가공 시설 장비 구축 관련 사업과 지역 특산물 관련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아울러 가공센터의 도움을 받아 창업한 기업들이 사업화 단계에서 생산 활동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자체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후 관리하였다.

함양군은 지역의 특화품목 육성 전략과 연계하여 향후 가공센터 운영, 가공 기술 개발,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양삼과 산약초를 지역의 미래 특화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생산 기반 확대와 연관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가공센터는 이러한

전략에 조응하여, 산양삼·산약초 가공식품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 작물의 농축 방식, 추출액 개발 관련 연구 예산을 이미 편성하기도 하였다. 함양군 지역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에 입각하여, 가공센터가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을 지역 특화 품목 육성 전략과 연계 추진하여 향후 관련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부연구위원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사업

- **사업목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 도모한다. 또한,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동 역량을 향상 시킨다.
- **사업기간** 2006~계속
- **법적근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에 관한 법률(제4조, 5조, 7조, 8조, 13조, 16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6조, 12조), 농촌진흥법(제16조, 제25조)

생활문화를 디자인하다

금산 문화의 집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은 봉황천이 가로지르고 있고, 봉황천을 중심으로 북쪽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한 변화가인 반면 남쪽은 소박한 지역이다. 금산군의 문화시설 다락원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북쪽에 위치해 있고, 그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금산문화의집은 남쪽 끝자락 남산 중턱 광장에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금산문화의집은 겉보기엔 소박한 지역에 자리 잡은 소박한 문화시설 정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15년 동안 금산군에서 벌인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박’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금산군의 주민들이 지금처럼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금산문화의집의 역할과 존재감은 그야말로 거대하기 때문이다. 금산군에 문화 르네상스를 불러온 이들의 파란 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금산문화의집' 그리고, '금산어깨동무생활문화센터'

현재 금산문화의집이 위치한 건물은 1968년에 지어졌다. 도서관, 문화원,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사용되다가 2000년 5월부터 금산문화의집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의집'을 만들었다. '문화의집'을 만드는 일이 확산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문화의집'은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소외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금산문화의집도 금산군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이다.

금산문화의집은 '금산어깨동무생활문화센터'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그 배경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다.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에서 금산문화의집이 선정되었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존의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2015년 9월, '금산문화의집'이자 '금산어깨동무생활문화센터'는 다시 개관하였다.





카페



대공연장



작은 도서관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활동 및 동호회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시작했다. 공모 방식이며, 유휴시설을 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등 기존 문화시설들도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생활문화센터로서의 역할도 함께 맡고자 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총 122개의 시설을 생활문화센터로 선정하였다. 금산문화의집도 선정되어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동호회 활동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금산문화의집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비디오룸, 컴퓨터실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2010년부터는 금산군 주민의 동호회 활동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설 이용의 비효율성과 불편함이 문제가 되었다. 금산문화의집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으로 기존의 불필요한 시설을 없애고 1층을 커피동호회가 운영하는 카페와 열린 회의실로 구성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금산문화의집은 36개 동아리 500여 명의 회원과 월 4,000여 명의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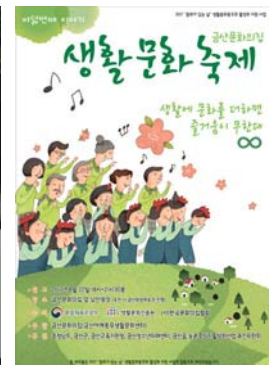
프로그램 수강 회원이 이용한다. 일반 방문객까지 포함하면 월 6,000여 명의 금산군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금산문화의집, 생활문화 진흥의 모범답안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주민의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문화 향유를 의미하는 ‘생활문화’가 여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금산문화의집에 박시영 센터장이 부임한 2009년부터 진행한 활동이 ‘주민 자발적’, ‘주민 참여적’인 문화 활동이다. 이미 ‘생활문화센터’에 어울리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해왔던 활동을 이어왔을 뿐임에도 2016년에 최우수 생활문화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생활문화’가 일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나게, 제대로 노는’ 활동이라면,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민이 제대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과 활동의 그 모범답안이 궁금하다면, 금산문화의집 직원들이 2009년부터 고군분투하며 벌여왔던 많은 일을 살펴보면 된다.

박시영 센터장이 부임하던 2009년 이전까지는 금산문화의집도 여느 문화시설처럼 일방적인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는 문화의집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문화의집’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와 설립 취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센터장은 문화의집이란



원래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 것이니, 주민이 원하는 테마를 주체적으로 입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중심축이자 원동력은 주민 주도의 ‘동아리’ 활동에 있다고 보고, 공간을 빌려주거나 문화의집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아리를 만들도록 독려했다. 2010년부터 수없이 많은 동아리가 이곳을 거쳐갔고 현재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는 총 36개 팀이 있으며, 그 회원수는 500여 명에 달한다.



독립적인 점들의 매칭 작업을 통해 생활문화를 디자인하다

금산문화의집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주민 동아리 활동은 단순한 소모임 활동만으로는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동아리 활동을 전문적인 활동으로 심화시키고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의미 있는 활동으로 확대할 방안이 필요했다. 이 고민의 해결책이 바로 ‘엮어주기’였다. 개별의 동아리, 지역 행사, 지역 발전 관련 사업, 면 지역의 작은 마을 등 각각의 점은 겉으로 보기에 큰 연관성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좀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가치를 낳는 방향으로 이 점들을 매칭하고 연결할 수 있다. 금산문화의집은 주민의 동아리 활동이 전문성 심화, 활동 영역 확대, 지역사회에 파급효과 등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연계 작업을 진두지휘하여 생활문화를 바꾸었다. 떨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하여 주민의 생활문화를 효과적으로 증진한 금산문화의집의 ‘생활문화 디자인’ 작업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 동아리 네트워크 ‘문화공동체 어깨동무’의 결성

먼저 동아리 간의 연계이다. 금산문화의집이 매칭 작업으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동아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여러 동아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뭉치면 독립된 동아리로는 만들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 동아리 결성을 지원하면서 금산문화의집뿐만 아니라 다락원, 금산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

다른 문화시설에서 관리하는 동아리까지 엮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바로 ‘문화공동체 어깨동무’의 결성이었다. 정기적으로 모여 의논하면서 서로의 활동을 도울 방법을 찾았고,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하거나, 규모가 있는 공연을 개최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2010년 말 ‘사랑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연이 가능한 오케스트라, 댄스, 밴드, 난타 등의 9개 팀이 모였고,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백지수표처럼 빈칸이 있어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도록 만든 초대장을 보내 관객을 모집했다. 공연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총 150만원의 후원금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그 당시 동아리 네트워크 ‘어깨동무’에서 활동했던 구성원의 상당수는 기관 실적 문제 등으로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산군 주민에게 동아리 활동을 알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가질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재는 금산문화의집에서 그 당시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신적 명맥을 이어 다시 팀을 결성했다. 구성된 36개 팀이 문화공동체 ‘어깨동무’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동아리에서 밴드 동아리의 공연 사진을 촬영해주거나, 노래 교실 어머니와 밴드가 결합하여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연합 활동은 금산문화의집 동아리에겐 흔한 일이 되었다.



금산군 내의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봄을 일으킨 동아리 활동도 있다. 바로 청소년 그룹사운드 활동이다. 처음에는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동호회 교육 지원 사업과 여타 적합한 사업들을 공모하여 금산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직장인 밴드의 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직장인 밴드의



열정과 금산문화의집 기획력이 적절히 결합되다 보니 이들의 실력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높아진 실력을 바탕으로 재능을 금산군 주민에게 다시 나누어 지역에 보답해보자는 취지로 금산문화의집과 밴드 회원들은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능 나눔 악기 수업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눔은 반이 되는 게 아니라 배가 된다는 말처럼, 차차 수업을 진행할수록 밴드 회원들의 음악적 수준과 남을 가르치는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음악 연주 활동과 교육 활동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

대도시가 아닌 읍·면에서 밴드 지도강사를 섭외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지역에 역량 있는 주민강사가 육성되고 금산문화의집에서 성인들과 함께 어울려 길러지던 청소년 밴드 활동이 학교의 방과 후 청소년 활동과 연계되어 수요가 창출되기 시작했다. 각 학교에서 청소년 밴드 마스터로 강사 섭외가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성인밴드는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이 금산군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기회가 점점 더 많아졌고 호응도 좋았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금산군 모든 학교에 청소년 밴드가 결성되었고, 지금은 초등학교에도 밴드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금산문화의집은 청소년밴드를 포함하여 댄스, 노래, 그 밖의 청소년들이 누리는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꿈과 끼를 뽐낼 수 있도록 금산군 최대의 청소년축제인 ‘금산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을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벌써 5회째다. 다양한 문화 네트워크와 기획 활동을 통해 길러진 동아리 문화가 지역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사회에 다채롭게 전파되고 결합하여 양질의 새로운 문화환경 창출에 이바지했다. 금산문화의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성인과 청소년이 경계를 넘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좋은 네트워크 문화 활동의 사례라 볼 수 있다.

● 공모사업과 동아리 활동의 연계를 통해 심화된 동아리 활동 진행

다음은 사업 및 프로그램 간의 연계다. 금산문화의집을 통해 다양한 동아리가 결성되고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 문화의집 예산으로는 이들의 심화된 활동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금산문화의집은 그 대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끌어와 동아리 활동과 연계했다.

동아리 활동에 금산군 ‘지역특성화 창업 교육’ 사업과 ‘마을 학교’ 사업을 연계하여 전문성을 심화하고 활동의 영역을 넓혔다. 금산군에 특화된 새로운 테마를 발굴하고자 지역특성화 창업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금산문화의집에서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아토피 치료와 생태 교육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 사업으로 아토피 치료 교육 지도사, 생태 교육 지도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토피 특공대 20명, 생태 특공대 20명을 모집해 3년 과정으로 전문 교육 지도사를 육성했다.

금산문화의집에서는 이들의 활동에 마을 학교 사업을 연결하기도 했다. 아토피 특공대, 생태 특공대가 마을 학교에 가서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80대 노년층으로 구성된 아토피 특공대는 부리면 수통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아토피 교육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이 UCC콘테스트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또한 생태 특공대도 각 마을 학교와 유치원에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2015년도 충청남도 대표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연계와 관련해서 ‘커피’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다. 금산군은 평생학습도시로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지정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자치종합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 문화의집 건물에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자치종합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부대학교에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금산문화의집에 개설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금산문화의집에서 커피 기계 등 장비를 갖추고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교육생들에게 커피 동아리 활동을 제안하여 '바리스타'라는 동아리가 처음 탄생되었고, 그 이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었다. 지금은 '금바리', '커피사랑' 등 총 7개의 커피 동아리가 활동한다. 건물을 리모델링해 카페를 만들었고, '금바리'와 '커피사랑' 동아리가 연합해서 매일 저녁 운영한다. 커피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실제로 카페를 창업한 동아리가 있다. 마트를 운영하던 커피 동아리 회원이 마트와 카페를 결합한 형태의 가게를 운영하게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업을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적절히 교차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작업을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금산문화의집은 문화 기획자로서 전문성과 안목을 가지고 주민들이 더 지속적이고 심화된 여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생활문화를 설계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 동아리 활동과 시장의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로컬푸드 시장과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 사례도 있다. 금산군 약초 시장에서는 매년 로컬푸드 판매 행사를 한다. 하지만 주최 측의 기획력이 부족해 주민의 관심을 끄는 데 어려움이 있어, 매년 형식적으로만 열렸다. 금산문화의집에서는 로컬푸드 판매 행사가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자리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로 발돋움 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큰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들이 낸 아이디어는 금산문화의집 연례 행사와 로컬푸드 판매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었다.

당시 문화의집에서 매년 진행하는 축제인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 금산 락 페스티벌, 주민 동호회 공연 등을 로컬푸드 판매와 결합해 행사를 기획했다. ‘문화 예술로 금산 농민을 살리자’라는 슬로건으로 ‘금산문화의집 문화 영화 콘서트’를 개최한 것이다. 로컬푸드 행사장에서는 농산물과 음식을 판매하고, 금산문화의집에서는 바로 옆에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했다. 공연

출연진이 350여 명이다 보니, 이들을 보러 오는 지인들만해도 1,000명 이상이였다. 게다가 재밌는 구경거리와 파전, 갈비탕 등 맛있는 먹거리가 한자리에 있으니 2,000여 명의 주민들이 몰려왔다. 당시 로컬푸드 행사에서는 1,600만 원 정도 수입을 거두었다. 시장에서는 로컬푸드 판매 행사를 한 것이고, 문화의집에서는 매년 해왔던 공연 행사를 한 것 뿐이지만, 이 둘을 한 자리에 묶는다는 발상 하나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었다.

● 읍 지역의 동아리 활동을 면 지역의 마을 행사와 연계하여 농촌 지역 문화격차 해소

금산문화의집에서 진행한 연계 활동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읍과 면의 연계다. 농촌 지역 안에서도 대부분의 문화시설과 편의 시설이 중심지에 집중되어, 읍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금산군 역시 다락원, 문화의집, 자치센터 등의 문화시설이 금산읍에 있고 금산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주민도 대부분 금산읍에 거주한다. 금산문화의집에서는 ‘100개



마을 결연 맺기 사업'을 시작했다. 각 마을에서 진행하는 마을축제에 동아리가 찾아가 무료 공연을 펼치거나 음향 장비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처음에는 마을 축제를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마을에서 축제 때마다 공연 요청이 들어온다.

2011년부터 시작한 '시골길 라디오콘서트 주파수 36.5'도 같은 취지로 진행된 행사다. 동아리가 오지 마을로 찾아가 문화를 전파하는 공연 행사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선물을 증정한다. 읍에서 소위 잘사는 주민을 찾아가 화장지, 전자레인지, 삼자루 등 다양한 물건을 후원받아 선물을 준비했다.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 매년 10개 오지 마을에서 투어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의집 동호회 회원 중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인, 국어·수학·음악 선생님 회원을 모집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오지 마을 아이들에게 교육 봉사를 진행하는 등 금산군 모든 지역에 문화와 즐거움을 나누려고 노력한다.

사실 지금까지 일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현재 금산문화의집에서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센터, 작은도서관 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생활체육 지원사업, 자치종합대학 사업 등 15개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금산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과의 인터뷰와 동아리 소식 등을 전하는 문화소식지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꿈나래 페스티벌, 금산 락페스티벌, 동호회 개별 공연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이 소박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산문화의집이 자신의 역할을 '생활문화 기획자'로 보고 주민의 문화 활동을 '디자인'해왔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금산문화의집을 진두지휘한 박시영 센터장은, 생활문화 기획자란 자신의 주관만을 고집하며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닌, 지역의 전체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각각의 주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민이 일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문화를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공 기관의 진정한 역할이라 본 것이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새로 도약하는 금산문화의집, 금산군의 문화플랫폼을 꿈꾸다

생활문화 기획자로서 금산문화의집은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주민이 향유하는 문화 활동의 영역도 다양해졌다. 이제 '주민 누구나 문화기획자가 되어 스스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단계'라고 한다. 금산문화의집 직원들이 매년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젠 주민 스스로 원하는 문화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공간을 활용해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의 집을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비유하자면, 주민 모두가 앱개발자가 되어 문화의집이라는 운영체제에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한 주민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방과 후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은 문화의집에서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가 방과 후에 자녀를 데리고 문화의집을 방문하면, 아이들은 1시간 동안 영화를 관람하고 그 시간 동안 주부들은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아이들이 영화 관람을 끝내는 시간에 맞추어 요리 프로그램에서 만든 음식을 다같이 나눠 먹는다. 이처럼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문화의집을 통해 실행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이 금산군에서 일어날 수 있다.

● 주민 모두가 문화기획자가 되는 날을 꿈꾸며

금산문화의집에서는 무엇보다도 문화 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가진 주민을 많이 배출하고자 노력하여 2015년부터 ‘문화리더’라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물론 지금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동아리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주민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주민 10명이



모여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한 달에 한 번 토론하는 운영위원회, 각 동아리 대표가 매달 모여 행사 등을 기획하는 동아리 연합회 어깨동무가 그것이다. 이 조직들이 문화의집과 동아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는 조직이라면, ‘문화리더’는 문화 프로그램 기획에 초점을 둔다. 금산군의 문화기획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주민 20명을 선정했고, 매달 정기 모임과 수시 모임을 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다.

‘어울림 문화 탐험단’이라는 조직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타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을 탐방하거나 문화 체험을 한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관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토론하는 릴레이식 강연도 열고 있다. 주민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생활문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치

금산문화의집이 2010년부터 동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한 일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생활문화'가 갖는 의미를 확장시켰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를 '지역 주민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금산문화의집 운영의 중심축인 동호회 활동이 바로 이 생활문화의 생생한 사례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동호회 활동은 주민의 소모임이나 단순한 여가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금산문화의집에서 진행된 생활문화는 주민 각자 문화생활을 증진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즐겁게 살아보자는 순수한 목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 공동체가 즐겁게 노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교육 서비스 제공, 문화 격차 해소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 냈다.

금산문화의집은 주민의 생활문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고, 추진력을 부여하는 '생활문화기획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금산문화의집은 생활문화센터의 모범 답안이라 할 만하다. 금산문화의집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 결과다. 각 지역의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설로 자리매김하려면, 금산문화의집처럼 생활문화 기획자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 연구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 **사업목표** 주민 동호회 등의 연습·회합·발표 및 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참여 의 접근성을 높인다.
- **사업기간** 2014~계속
- **법적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칠갑산 자락에서 싹 트은 예술꽃 씨앗

청양 수정초등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과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장 공모 확대’ 사업을 바탕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를 학생이 다니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시킨 충청남도 청양군의 수정초등학교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있고, 공교육 내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학생 수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중 문화·예술 교육 의지가 강한 곳을 골라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 수당, 교보재 구입비,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비, 교내 공연 개최비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장 공모 확대’ 사업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촌 학교에 적합한 인재를 교장으로 임용하여,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떨치던 8월, 칠갑산 자락에 있는 수정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마침 다음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날이 개학이라 선생님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도 하고, 여기저기 물품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생각했던 농촌 학교의 모습과 달리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였다. 때마침 다음 날 부터 이 학교로 전학 올 2명의 학생이 교무부장 선생님과 학교를 구경하고 있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불거지는 농촌 지역에서는 꽤나 낯선 풍경이다.

폐교 위기의 학교, 한 줄기 희망의 빛

1947년 대치면에 위치한 대치초등학교 주정분교장으로 출발한 수정초등학교는 칠갑산 밑자락에 자리잡았다. 1949년에 수정초교로 승격된 후 지금까지 2,57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청양군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했던 이 학교도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학생 수가 꾸준히 줄었다. 같은 면에 있는 대치초등학교는 2012년에 폐교되었고, 당시 전교생 수가 10여 명에 불과했던 수정초교도 폐교 위기에 놓였다. 다행히 충청남도 교육청이 1면 1교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대치면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수정초교는

폐교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다.

수정초교를 바라보는 지역 학부모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다. 농촌 학교는 보직 기간을 채우면 바로 떠나려고 하는 선생님이 많아 학기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고,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이 부임해 오면서 학교 운영을 방치하기도 하였다. 수정초교는 어느새 학부모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가 되어버렸고, 지역 중심지인 청양읍과 가까운 대치면 학부모들은 청양초등학교로 아이를 보내려 했다.

이런 수정초교에 2014년 9월,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부임하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류동훈 교장은 공모제 교장으로 선발되어 수정초교로 왔다. 교장선생님이 부임한 2014년, 전교생은 19명에 불과했으며 그 해 신입생은 단 2명이었다. 2015년 입학 예정자는 한 명도 없었다.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가정을 직접 하나하나 방문했다. 방문할 때마다 여태까지 학교가 무엇을 했냐며 불만을 털어놓는 이들이 많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류동훈 교장의 열정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녀를 수정초교로 보내기 시작했다. 교장이 부임한 다음 해인 2015년, 학생 8명이 늘었다.

새로운 도전의 시작, 명품 방과후학교 만들기

딱히 내세울 것 없는 농촌 학교가 무슨 수로 아이들이 다니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었을까? 교장선생님은 방과후학교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기존에 운영되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였다.

교장선생님이 부임하기 전 수정초교가 운영하는 영어, 태권도, 피아노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여기에 골프, 스피치 리더십, 요리 교실, 로봇 과학 교실, 드론 교실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수정초교는 재학생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청양군의 유명 영어 학원 강사가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을 전담하고 전교생이 학년별 특성에 맞게 영어 수업에 참여한다. 고학년 학생들은 EBS가 주관하는 영어능력 인증 시험(TOSEL)을 준비하며, 저학년은



수정초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대상(학년)	요일
특기·적성 프로그램	피아노	1~6	월/수/목
	미술	1~3	수/금
	태권도	1~3	월/수
	골프	4~6	월/수
	스피치리더십	1~2	화
	창의요리(요리 교실)	3~4	수
	로봇누리(로봇 과학 교실)	4~6	목
	드론	5~6	수
	7560(기타 스포츠 활동)	3~6	목
교과 프로그램	영어	1~6	화/목/금
	원어민 영어	1~2	월
기초 학습 프로그램	기초 학습 도우미(기초 학력)	대상자	-
	두드림학교(한글 교육)	대상자	-

발음 위주로 수업하고 원어민 선생님이 강의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국어와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돕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기초 학습도우미’ 사업으로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두드림학교’ 사업으로는 문해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한글교실을 운영한다.

수정초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모두 13개다. 이중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교과 프로그램과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학습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선택하여 참여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다양해지자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의욕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학교가 공을 들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 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라는 점도 학부모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학생들은 따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으며, 전교생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오후 5시에 하교한다.

멈추지 않는 도전, 예술꽃 씨앗학교로 더욱 풍성해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정초교는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모두 만족시키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수정초교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문화·예술 교육으로 이어졌다.

농촌 학교가 문화·예술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제한되어 있고, 지역 여건도 충분치 않다보니,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전문 강사를

찾기 힘들다. 수정초교는 농촌 지역에서 이처럼 문화·예술 교육의 여건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교가 걱정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공교육의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지원해주는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수정초교는 예술꽃 씨앗학교 7기에 선정되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 동안 총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국악에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악을 전수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정초교는 국악을 주제로 6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판소리, 장구, 가야금, 해금, 난타, 춤사위)을 구성하였다. 판소리는 공주시에 위치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서, 장구·가야금·해금·난타는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에서 우수한 실력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춤사위는 청양읍에서 전통 무용 학원을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유명 강사가 담당한다.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프로그램에는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 악기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저학년 학생들은 주로 난타와 춤사위를 배우고, 고학년 학생들은 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프로그램을 모두 수강한다. 해금 수업은 희망자만 선택하도록 했다.

수정초교의 예술꽃 씨앗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학년)	요일	지원 기관
판소리	3~6	화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장구	3~6	화/금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가야금	3~6	화/금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해금(선택)	3~6	목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난타	1~6	월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춤사위 (전통무용, 탈놀이 포함)	1~6	금	윤금선무용단

2017년, 수정초교는 예술꽃 씨앗학교 2년차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지금까지 같고 닳은 실력을 지역사회에 선보였다. 면민 체육대회, 노인회관,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등 지역 곳곳에서 공연하며 실력을 쌓아갔고 학생들은 공연을 위해 여름방학에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연습하였다.



그해 11월, ‘스토리가 있는 수정 각설이’ 공연을 기획하여 무대에 올렸다. 마당극으로 진행되는 이 공연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해금과 판소리가 만나고, 난타와 가야금을 합주하는 참신한 기획이었다. 예술꽃 씨앗학교가 단순히 학교 문화·예술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역에 문화 향유 기회가 꽃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합심하여 공연을 준비했다.

수정초교의 성과, 그리고 예술꽃을 피우기 위한 속제

현재 수정초교는 예술꽃 씨앗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도시 학교와 비교해도 많은 편이다. 농촌 학교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평균 약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쓰지만, 수정초교는 2배인 약 1억 4천만 원을 쓰고 있다. 청양군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정초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알차다고 소문이 나면서, 청양읍에서 전학을 오는 어린이들도 많아졌다.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현재 전교생 수는 63명이다. 2017년 입학한 1학년 학생은 14명이며, 입학 문의가 계속 오고 있지만, 작은 교실 때문에 학생을 더 이상 받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다. 학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병설 유치원의 입학 경쟁률까지 높아졌다.

수정초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 하였다. 전교생 수도 2015년 19명에서 2017년 63명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여 여느 농촌 학교보다 활력이 넘친다. 그러나 현 교장선생님의 공모제 교장 임기가 2018년에 끝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이 2019년 2월에 종료되는 점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후 수정초교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으면, 현재 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 지원이 크게 줄어들어 현재 수행 중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유지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수정초교의 학생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청양군 수정초교는 농촌 학교도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참신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다.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학부모들이 우수한 교과 과정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에 목말라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농촌 학교의 폐교만을 검토하기 이전에, 농촌의 학교가 지역에서 적절한 교육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과 같이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해·유은영 연구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 **사업목표**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취약 지역 소규모학교(전교생 400명 이하) 대상 1인 1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감수성을 증진한다.
- **사업기간** 2008~계속
- **법적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악취잡고 소득올린 유일무이 반전마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냄비현상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공생, 화합, 배려 등이 누구나 높게 평가하는 가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때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왜 하필 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쓰레기도 자신의 집에서 최대한 멀리 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집값이나 땅값을 떨어트리는 부정적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한다. 앞장서 유치하기보다는 외면해야 하는 것이며, 서로 이해관계가 없던 주민이라도 합심해서 몰아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한다.

하물며 똥은 어떠한가? 흔히들 ‘똥 밟았다’라고 하면 대개는 ‘재수가 없다’, ‘일진이 사납다’라고 생각한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냄새 나고 더러워서 피한다. 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배출해야 하는 것이 똥이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활용하는 시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면 어떠할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축 분뇨는 물론이거니와 지역내 모든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받아들이고

이를 마을 발전의 계기로 삼은 마을이 있다. 어떤 연유로 시설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현재 시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떠안고 마음의 문을 닫다

소매곡리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위치한 행정리이다. 오래전 얼밀 또는 소매곡이라 불리던 지역이 1914년 굴결, 덕방이 지역과 통폐합하여 지금의 소매곡리가 되었다. 소매곡리는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북쪽으로 홍천강이 흐르고 마을 뒤로는 금학산이 자리 잡고 있는 전형적인 산골이다. 다리가 놓이게 된 1995년 전까지만 해도 배를 타고 홍천강을 건너야만 맞은편에 닿을 수 있는 고립된 섬마을이었다. 교통이나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지만 2000년대 초까지 약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나름 규모를 갖춘 마을이었다.

예전부터 주민들은 군청에 찾아가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홍천군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기초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홍천군 인근에서 온천을 개발하는 민간 사업과 연계하여 다리를 건설하고 그 댓가로 군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을에 설치하고자 했다. 주민들은 온천이 개발되고 다리가 놓이면 생활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고 어수선했던 분위기 속에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섰다.

당시 주민들은 큰 희생을 감수한 채 군의 약속을 믿고 시설 설치에 동의하였고, 2001년 소매곡리는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장, 인분처리장까지 총 3가지 환경기초시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온천을 개발하던 민간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서 다리를 놓아주겠다고던 군의 약속은 흐지부지되어 버렸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적정치를 넘어서면서 악취가 심하게 나기 시작했다. 물 좋고 공기 좋던 청정 오지 마을이 ‘냄새나는 마을’, ‘똥통 마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 것이다.

“당시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일일 처리량이 초과가 되어 처리를 못하니까 사실상 처리를 미처 다 못하고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시절이다 보니 악취가 심했죠.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이익 창출이 목적이라 처리 약품을 제대로 사용한 것도 아니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었죠.”

(마을 주민 면담 내용)

‘차츰 괜찮아지겠지’ 라는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마을을 뒤덮은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도리어 생활하수 유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배출되었다. 마을 앞을 흐르던 맑은 강도 오염되기 시작했고 또한 식수 부족, 겨울철 난방, 외부와 단절된 교통 등 열악한 생활환경은 하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마을의 가구 수는 50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노인들만 남은 마을에서는 마땅히 항의할 방법도 몰랐고,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소매곡리 마을은 악취와 환경오염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갈등을 딛고 마을 발전의 계기로 삼다

홍천군의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시설 증설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은, 시설이 들어서고 10년이나 지난 2011년이었다. 초기에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1,000ton을 처리 할 수 있었지만 생활하수와 가축 분뇨가 증가하여 평균 유입량이 처리 용량의 적정치를 넘게 되었다. 악취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홍천군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을 세웠다.

당연히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비단 악취 문제만이 아니라 이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시 군에서 약속했던 다리 건설, 마을버스 운행, 마을 정화조 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약속 불이행에 대한 배신감으로 홍천군에 불신이 깊어진 상태였다.



또한,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로 생산하는 전기와 열에너지는 얼마 안 될 것이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여전할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었다. 홍천군은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마을 회의와 관계자 협의회를 열었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주민들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다. 단 몇 분 만에 회의가 결렬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과 홍천군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은 당시 정부가 주도한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2013년)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2014년)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에는 홍천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시설 증설 계획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타운이라는 당근을 내놓았다. 군에서는 시설을 새롭게 증설하면 기술이 발달하여 과거와 달리 냄새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하고, 도로 포장, 상하수도 배관 설치 등을 약속하였다. 바이오 가스로 도시 가스를 공급하고 퇴비공장 수익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며, 비닐하우스 난방이나 건조 작업에 바이오 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이장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마을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였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섰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시설을 보다 좋게 개선하려는 사업인데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한다면 악취 문제도 해결하고, 추가적인 이득으로 마을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섰다. 반대하던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개별적으로 방문 하기도 하였다. 흥천군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논산, 포천, 전주, 태백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녔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마침내 소매곡리 주민들로부터 100% 동의를 얻어내어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자원을 에너지로 바꾸다

흥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주축을 이루는 시설은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과 퇴·액비 자원화 시설이다. 국고 79억 원, 지방비 52억 원, 민간 10억 원 등 총 141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의 경우 국비예산 181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141억 원의 사업비는 퇴·액비 자원화 시설에 72억 원,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와 그린 빌리지 조성에 16억 원이 사용되었다. 마을 상·하수도 관로 정비, 바이오가스 공급 관로 설치에 33억 원을 들이고,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였다. 그밖에 꽃길 조성, 안내판 설치, 도로 포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마을 환경 개선에 6억 원이 투입되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은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정제하여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흥천 관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돼지 분뇨 80톤과 음식물 쓰레기 20톤을 처리한다. 이를 혐기성 소화조에 30일 동안 보관하여 자연발효가 되면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기타 가스가 매일 약 3000루베 발생한다. 그 중 65%를 차지하는 메탄가스를 도시가스로 정제하면 하루에 2000루베 정도 된다. 이는 연간 약 750가구에 난방 연료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발생한 가스 중 약 7% 정도를 마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강원도시가스에 판매

한다. 마을은 연간 최대 66,000루베를 무상으로 공급받는데, 연 가스요금의 40~50%를 절감하는 셈이다. 흥천군과 협약을 맺어 상한선을 정하였으며 추후 난방 수요가 늘어나면 협의를 통해 조정도 가능하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남은 찌꺼기와 톱밥을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시설이다. 일일 처리하는 퇴비의 양은 약 20톤이다. 생산된 퇴비는 작년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1포(20kg)당 포대 값 500원만 받고 저렴하게 판매되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퇴비가격(2,000원 정도)과 비교하면 주민들은 상당히 싼 가격에 퇴비를 구매한 셈이다. 올해부터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판매하다 보니 농사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15년부터 2년 동안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12월 부터는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유한회사에서 운영하게 된다. 퇴비 판매액으로 연간 5,400만 원 정도가 마을 자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액비 시설은 아직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가동하지 않지만 액비를 생산해 인근 골프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여유 부지에는 34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17kW 규모의 소수



력발전 시설이 설치되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SK ENS에서 10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마을에 기증했다. 처음에는 5:5로 마을과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했으나 마을에서 자부담할 여건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치하고, 결국에는 무상으로 마을에 기증 하였다. 태양광 에너지는 전량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데, 작년 기준 약 8,900만원의 수입을 냈다. 소수력 발전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이 강으로 떨어지는 낙차(11m)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여기에서 생산한 전기는 현재 홍보관에서 이용한다. 작년 기준 소매곡리 마을은 전기 판매 수입 8,900만원과 전력 비용 절감액을 포함해 약 1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마을 주민들은 사업 초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지만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이 까다로웠고 영농조합법인으로는 전체 마을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2016년에 영농조합법인을 유한회사로 전환하였다. 현재 유한회사가 퇴·액비공장 인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태양광 시설과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마을 사업도 유한회사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조합원으로 마을 주민 약 40세대가 유한회사에 속해 있다.

냉새는 줄이고, 소득은 올리고,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모하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완공되면서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것은 도시가스 이용이다. 기존에 불편했던 난방 시스템이 개선되고 도시가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 수 증가로 이어졌다. 농촌 지역에서 겨울철 난방비 문제는 귀농·귀촌인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곤 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농촌 지역이 몇 없을 뿐더러 기름 보일러, 연탄 등을 사용하면 겨울철 난방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소매곡리 마을은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가스 혜택을 포함해 기존 주민들이 받고 있는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소매곡리는 2001년 이전 가구 수

수준으로 회복하여 약 70가구가 거주하며 주민 절반 이상이 귀농·귀촌인이다. 가스 배관 공사와 함께 상·하수도 관로도 설치되어 안정적으로 수도 공급이 이루어져 식수 걱정도 덜게 되었다. 소매곡리는 사업 전까지만 해도 주변 지역에 비해 땅값이 저렴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난방을 하는 방법이 심야 전기, 기름, 연탄 보일러 등 이런 식이었고 한 달에 4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반면에 지금은 가스요금을 50% 지원받아서 15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마을 주민 면담 내용)

한편, 마을에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악취 문제는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처리시설 상판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비가 오거나 기압이 낮을 때 악취가 조금 나지만, 현장 주변에서만 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현재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저는 흥천에 연고가 없어요. 남편과 함께 평소에 낚시 때문에 자주 흥천을 왔는데 남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흥천으로 귀농·귀촌한 케이스예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처음엔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비오는 날에 살짝 나고 평소에 냄새가 거의 안 났으니까요.”

(마을 주민 면담 내용)

마을에 고정적인 소득이 생겼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소매곡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 공동 소득도 없고 특화 품목이 없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마을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연간 1억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시작 단계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태양광 에너지와 퇴비 판매로 올릴 수입으로 새로운 마을 사업을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꿈꾸게 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마을 홍보관에는 주민 1명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마을 홍보 업무를 포함해 매일 전기 판매 물량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일을 담당한다. 카페테리아도 마을 주민이 운영한다. 내년부터 퇴·액비 자원화 시설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주민 2명이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다. 여러 면으로 마을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업이다.

또한, 국내외 선진 사례로 소개되면서 연간 5천여 명 이상이 찾아오는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 찾아오는 사람이 늘면서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찾았고, 주민들 간의 소통도 활발해졌다.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회의하고 활동하는 공간이 생겼다. 커뮤니티센터의 1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카페테리아와 회의실이 갖추어져 있고, 2층은 마을 홍보관으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으로 방문객을 수용하는 숙박시설도 설립할 예정이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유기적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 있다. 사업 초기 환경부, 홍천군, 강원도시가스는 MOU를 체결하여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생협력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설계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행정과 주민 간의 지속적인 소통도 큰 역할을 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주민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였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수익 분배 및 재투자 등과 관련된 마을 규약을 작성해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간 갈등과 불화를 방지하였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들어오기 전 57가구였던 마을이 70가구로 늘었다. 최초 사업이고 워낙 관심과 주목을 받으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높아진 우리 삶의 질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이다.”

(마을 노인회장 면담 내용)

향후 과제

마을 주민들은 2017년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퇴·액비 자원화 시설 인수 준비에 여념이 없다. 퇴비의 소포장 방식이라든지 제품 판로 확보 문제 등 처음 겪는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흥천군과 협의하여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방침이며, 사업 수익으로 조성하는 마을 기금으로 몇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우선 바이오 가스 에너지를 활용하여 공동 비닐하우스를 만들 계획이다.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유기농 채소를 공동 재배하거나 잉여 농산물을 건조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라 볼 수 있다. 흥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4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과도한 사업비 투자와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무산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가축 분뇨 및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문제는 돈으로만 따지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다. 사업의 환경적·공익적 가치, 시설이 없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홍천의 사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소매곡리처럼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하여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민경찬·박지숙 연구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 **사업목표** 가축분뇨처리장 등 주민 기피시설을 에너지 공급시설과 연결시켜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 **사업기간** 2014~2018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보조)

지역사회 품속에서 성장하는 젊고 따뜻한 농장

홍성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



홍성군 장곡면도 여느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1960년대 장곡면은 약 1만 3천여명이 살던 제법 북적대는 지역이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현재 주민은 3천명 남짓에 불과하고 면에 하나밖에 없는 장곡초등학교 학생 수는 현재 46명으로 면 전체 주민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학생 수가 1천 3백명을 넘었던 1960년대와 비교하면 동네에 아이를 둔 청·장년층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는지 알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니, 지역에서 농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 더해졌다.

이런 장곡면에 두 농장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쇠락하던 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있다. 청년 농민을 키워내는 ‘젊은협업농장’과 만성 정신질환자를 고용하여 이들의 재활을 돕는 ‘행복농장’이 그 주인공이다. 두 농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장곡면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고 하여, 장곡면을 찾았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젊은협업농장: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을 육성하자

우리나라 청년은 농사를 직업으로 삼기 힘들다. 상당수의 청년은 어릴 적 농촌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농사일이 생소할 뿐 아니라 창농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창농을 했더라도 농업 소득만으로는 살림을 꾸려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은 청년들은 형편이 낫지만,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농업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예전보다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두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농촌에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실은 농촌과 청년의 결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젊은협업농장’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홍성군에는 60년 가까이 학생들에게 농업을 가르쳐 온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이하 풀무학교)’가 있다. 학생 대부분이 지역 농민의 자녀였던 과거에는 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와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농민이 되는 졸업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 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에 농사를 시작할 기반이 없고, 지역에 연고가 없어 곧바로

사회적
농업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젊은협업농장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청년들이 파종부터 판매까지 농사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젊은협업농장을 이끌고 있는 정민철 대표는 풀무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012년에 그만두고 졸업생 2명과 ‘세남자농장’이란 이름으로 농장을 시작하였다. 세 사람이 농업으로 지역에서 살아남자는 당찬 포부로 일을 벌인것이다. 정민철 대표는 농장이 농업 생산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농지 300평에 농사를 지으면 농민이 되는데, 300평에서 나오는 농업 수입은 뻘합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농업을 하면서도 농민으로 규정되는 실정에서 농업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의심했고, 우리가 고민한 방향은 최소 생활비 50%를 농업이 차지하도록 하자는 거였죠. 나머지 50%는 농외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이고요. 그래야 농업을 운영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시작한 세 명이 최소 소득 3,000만원을 올려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소 논 8,000평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논 8,000평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젊은협업농장이 장곡면에 자리를 잡고 논 3,000평을 임차하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논농사로의 진입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밭농사를 위한 농지도 1,000평은 확보해야 되는데, 농지와 농기계 임차가 문제되었어요. 당시 우리가 모은 투자 비용은 전부 1,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이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농업은 시설하우스 밖에 없었어요. 200평 비닐하우스 1동을 일 년 동안 빌리는 데 임차료가 100만원이었어요. 그다음은 다양한 시설하우스 작물 중에 세 명이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작물이 뭐가 있는지였어요. 세 명이서 미니 토마토를 재배하면 미니 토마토를 생산할 수 없는 한 겨울에는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안 놀고 할 수 있는 작물이 뭐냐? 그래서 찾으니까 농민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 일반 농가에서는 진짜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는 작목인 싹 채소를 하게 된 것이죠.”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2012년 ‘세남자농장’은 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시설하우스 1동을 임차하여 쌈 채소 10종류를 생산하면서 시작하였다. 쌈 채소 재배 경험이 없다보니 수확에 자주 실패하여 순수익이 거의 없었다. 정상적인 농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2년 말 장곡면 도산리 이장으로부터 시설하우스 3동을 추가로 빌리면서 장곡면에 기반을 마련했다. 1년 동안의 실패가 값진 경험이 되어 시설하우스 4동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동네 분들이 농사짓고 싶어하는 지역 젊은이들을 연결해주어 농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수도 늘어났다.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은 얼마 동안 일하던 상관없이 모두 받아주면서 청년 10명 이상이 함께 일하는 농장이 되었다.

2013년에는 기존에 임차한 시설하우스 4동 바로 옆 이장님의 땅을 추가로 빌려 시설하우스 4동을 신축하였다. 신축 비용의 70%를 정부에서 보조하였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었다. 당시 농장 형편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 주민 42명이 4,200만 원을 출자하여 자부담 부분을 메꾸고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때부터 ‘세남자농장’은 ‘젊은협업농장’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청년 농민을 육성하는 농장의 체계를 갖추었다.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우선, 신축한 시설하우스 4동을 협동조합이 소유하도록 하였다. 조합원 중 시설을 소유한 사람이 조합을



탈퇴하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장에서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만 임여를 배당하도록 했다. 이는 애초에 농장이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이유와 관련이 있다. 젊은협업농장은 영리 목적으로 출발한 기업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청년 농민을 길러내자는 사회적인 목표에 합의하여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수익은 생산에 참여한 조합원에게만 노동의 대가로 배당한다.

그리고 젊은협업농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협동조합 대표와 이사진을 구성하였다. 풀무학교 이사장, 홍성 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도산리 이장 등 3명이 외부 이사로 참여하고 젊은협업농장의 생산자 2명이 이사진에 포함되었다. 풀무학교는 젊은협업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홍성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젊은협업농장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약 70%를 사들였다. 도산리 이장은 젊은협업농장 초창기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고, 특히 젊은협업농장의 기반이 되는 땅과 시설하우스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사진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농장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생산 참여자들이 협동조합을 독단적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농장 운영에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외부 이사진 수를 생산자 이사보다 많이 구성하였다.

청년 농민을 키우는 농장 운영 모델도 구체화하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년이 혼자 농촌에서 농장을 시작하기에는 위험이 크다. 그러니 농장에서 1~2년 동안 농사를 배운 뒤 독립하여 자신의 농장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청년 농민을 키워내는 방향이라고 보았다. 농장에 온 사람들도 최대한 많이 배워 독립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협업하여 농사짓는 법을 배우는 농장’이란 의미로 이름을 젊은협업농장이라고 지었다. 농장 운영진을 제외하고 2013년에 농장에 있던 청년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는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독립하여 자신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젊은협업농장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청년들이 독립하여 농장을 차리려면 향후 정착할 지역의 농업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용한 지역별 농업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정보는 사적 인맥을 통해 공유되는데, 농장에서 일하다보면 그런 네트워크에 속하기가 쉽지 않다. 독립하여 정착할 때 지역의 농민이나 농업 관련 기관, 지역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젊은협업농장은 2013년 하반기에 ‘장곡 배우기’란 지역 학습 모임을 기획하였다. 흥성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과 교류하고, 지역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청년 스스로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는 기회가 되었다.

젊은협업농장 초창기에 농장의 주력 참여자는 30대 청년들이었다. 대부분 1~2년 간 농장에서 농업을 배우고 자신의 농장을 차리기 위해 독립했다. 농장은 이들과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고 대부분 잘 정착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농장에 20대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젊은협업농장은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다. 20대 청년들은 30대와 달랐다. 미래에 대한 구상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농업과 농촌에 관심이 있어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농민의 삶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청년들이 농업 활동 외에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돕는 것도 농장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당시 기획한 사업이

청년 2명의 이름을 딴 ‘해강산프로젝트’다.

2015년에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청년 세대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누릴 수 없었던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추진하였다. 홍성군의 여러 조직이 협력하여, 장곡면과 흥동면에서 철학, 문학, 마을 기록, 사진, 한시와 논어 읽기 등 다양한 강좌들을 열었다. 2017년에 지역에서 열리던 다양한 강좌들을 엮어 ‘평민지역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적인 청년배움터의 장을 마련했다. ‘유기농업’, ‘역사인문학’, ‘기초화학’, ‘유기재배의 기초와 실제’, ‘지역의 이해’ 등 7개 강좌가 매주 1회 진행된다. 젊은협업농장의 청년들은 하루 종일 농사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오후 4시가 넘으면 손에 묻은 흙을 씻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교육 강좌를 수강한다.

젊은협업농장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농장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또다른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젊은협업농장은 홀로 모든 활동을 소화하면서 농장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민철 대표는 농업 경영체의 전체 투자 규모 중 농업에 대한 투자가 절반을 넘고, 전체 수입 중 농업을 통한 수입이 절반을 넘어야 농장이라 부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농장 구성원 중 20대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농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교육에 관심을 많이 쏟게 되는 현상이 늘자 젊은협업농장은 농업생산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교육활동도 지속할 방안을 고민했다. 교육활동을 지역 내의 다른 조직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조직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17년 ‘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이 조합은 젊은협업농장과 별개로 농업 교육 현장실습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장곡면으로 찾아오는 청년을 농장과 연결하여, 농업 교육에 대한 선택지를 다양화하려는 의도이다. 조합에는 젊은협업농장을 포함하여 지역의 9개 농장이 참여하고 있고, 9개 농장과 청년을 연결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다양한 행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학습 네트워크도 구축하였다. 2017년부터 시작한 평민지역학교는 젊은협업농장 외에 여러 지역사회 조직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흥동면의 ‘풀무교육연구소’와 올해 창립한 ‘마을학회 일소공도’ 등 학습 조직이 젊은협업농장과 함께 학습 네트워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 장소로는 흥동면의 ‘흥동밤밭도서관’과 장곡면의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을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 젊은협업농장은 농촌의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흥동면 ‘생각실천창작소’, 장곡면 ‘청년농부 작업장 온’과 협력하여 창업 인큐베이팅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물론 젊은협업농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유능한 리더와 청년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원이 없었다면 쉽사리 될 일은 아니었다. 땅과 시설하우스를 임대해주고 젊은협업농장에서 벌여나가는 일들을 응원했던 도산리 이장과 마을 주민들, 젊은협업농장이 자리 잡기까지 농장의 생산물을

대부분 사들였던 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다양한 교육 강좌를 기획하는 데 동참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한 여러 지역사회 조직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수 많은 사람들이 젊은협업농장의 일에 협력했다. 젊은협업농장은 지역사회의 품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젊은협업농장에서 인연을 맺은 청년들이 모두 농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로 돌아가기도 하고, 농촌에서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창업하기도 한다. 젊은협업농장은 청년 농민을 키워내는 농장에서 청년이 농촌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농장으로 성장하였다. 젊은협업농장의 시도와 역할은 우리나라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청년 사이의 관계를 정민철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15년 흥성군에서 농축산물 판매로 얻은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67.3%를 차지합니다. 3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90%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 농장 청년들이 독립하더라도 도달 가능한 수준이 딱 그 정도일 것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농촌이 지속가능하려면 3000만원 미만인 농가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농가들은 적정 수준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 활동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예요. 이 층이 유지되고 넓어져야 농촌이 유지될 겁니다. 그 이상에 속하는 농가가 많아지면 농업은 살아남아도 농촌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농업 소득이 적다보니 이런 농가들은 농업 말고 농장이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에 관심을 둡니다. 농촌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역할을 하는 농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청년들이 이런 영역으로 진입하면 농촌에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탈출구가 여기서 나오지 않겠냐고 보는 것이죠.”



행복농장: 정신질환자에게 행복을 주는 따뜻한 농장

농촌은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역사회 내에서 돌보았다. 농장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이들에게 일을 맡기고 돈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돌봄의 대상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었다. 그런데 요즘 농촌에 가면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전문 사회복지기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업을 산업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서 농업과 지역사회가 분리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옛날 농촌은 농사로 자급자족 하였고 농사일이 곧 지역사회 활동이었다. 그러나 요즘 농촌에서 농업은 생계수단의 하나일 뿐이며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농장에서 그냥 고용하기란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이 농촌에서 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행복농장’에서 찾을 수 있다. 행복농장은 소외된 사람들을 농업을 통해서 품고자 했던 것이다.

행복농장은 1,200평 남짓한 농지에 조성한 시설하우스 5동에서 허브, 꽃, 채소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주요 생산 품목을 1년 내내 생산한다면 2017년 행복농장의 농업 소득은 대략 3천만원이다. 2016년에 2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장은 성장 중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년 간 농민 2명이 시설하우스 5동에서 얻는 소득이 4천만~5천만원이기 때문에 농장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아직 수익도 충분치 않은 행복농장이 무슨 연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품을 생각을 했을까? 그 까닭을 알려면 행복농장의 설립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발단은 충청남도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이하, 센터)에 있다. 센터는 재활 치료 목적으로 지역의 정신질환자들을 농장 활동에 참여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2014년에 홍성군 장곡면의 ‘젊은협업농장’에서 농업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학과 출신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 ‘행복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농장을 운영하였다. 센터 직원 1명을 농장에 배치하고 정신질환자 5명과 함께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센터에서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대안으로 농업인 2~3명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들을 고용하여 돌보는 방식이 관철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이 농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2015년, 젊은협업농장 맞은편에 ‘행복농장’이란 이름을 그대로 써서 농장을 설립했다. 2016년에는 이런 취지에 뜻을 같이한 11명이 600만원을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장곡면에 행복농장이 자리를 잡을 때부터 농장의 실무 이사를 맡고 있는 최정선 씨는 행복농장을 소개하는 팸플릿에서 농장 설립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입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따뜻한 확장이 시작되는 터전입니다. 행복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지역과 함께 복원하고 펼쳐
나가려 합니다.*

행복농장을 설립하는 데 센터와 젊은협업농장의 역할이 컸다. 그렇다보니 농장에서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활동은 두 조직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행복농장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자연구시’ 프로그램이다. 2014년까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행복농장이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어 운영한다. 매년 센터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1500만~2000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충남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신질환자들이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농사일을 배우면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일반 자연구시 기초과정’,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기초 과정은 4박 5일 간 진행하며, 1년에 2~3회 실시하고 매회 10~12명이 참여한다. 2017년에는 2회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센터에서 충청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기초 과정 동안 참여자들은 센터 직원들과 행복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펜션에서 숙박하고 일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씩 행복농장과 젊은협업농장에 두 개



조로 나뉘어서 농장 활동에 참여한다. ‘화수농원’, ‘옥계열매농장’ 등 인근 농장에서 행복농장과 젊은협업농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농업 활동에도 참여한다. 여러 농장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양한 작물을 다뤄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근 농장들이 협력하여 서로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다. 센터는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기초과정이 끝나면 기초과정 참가자 중 희망자 2~4명을 선정하여 심화과정을 2~3주에 걸쳐 진행한다. 심화과정 참여자들은 농장에서 일하는 일반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복 농장과 인근 농장에서 일상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센터에서

담당한다. 심화과정 참여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2~3주 간 머물 곳이 없다는 점이다. 2016년에 심화과정을 진행할 때는 장곡면 도산리 이장님이 마련해 준 가옥에서 지냈고, 이장님의 사모님이 손수 참여자들의 식사를 챙겨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2017년에는 센터에서 지원할 여력이 안 되고 기초과정 참여자 중 적당한 대상자가 없어 심화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

행복농장에서 실시하는 자연구시 프로그램 개요

▶ **자연구시 프로그램** :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과 기술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구분	교육대상	숙박	기간	교육내용	참여방법	인원	목표
자연구시	1.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만성 정신 질환자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복지관 또는 기관 소속의 그룹 별 진행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만성 정신 질환자		1회 / 매주			10~15명	외부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3. 일반 자연구시	만성 정신 질환자	4박 5일	3회 / 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기관에 소속된 10명 선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4. 일반 자연구시 심화 과정	만성 정신 질환자	3주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중 선발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 이수자 중 평가							
5. 자연구시 인턴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 활동과 지역 활동 참여	회원의 의지, 농장평가, 전문가의 조언 후 가능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이렇게 심화과정까지 마친 참여자 중 1~2명이 행복농장에 인턴으로 고용되었는데, 이들은 인근의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농장에서 일하고 돌아간다. 인턴을 고용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년 동안 인건비의 일부를 농장에 보조한다. 최초 6개월은 인건비의 80%를, 그 다음 6개월은 60%를 지원한 후 인턴 과정이 끝나면 일부는 정식으로 농장에 고용되어 일한다. 현재 행복농장에 정식으로 고용된 만성 정신질환자는 1명이다. 자연구시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인턴을 거쳐 2년 넘게 농장에서 일한 A씨는 2017년 3월 정식으로 고용되었다. A씨는 일반인 작업량의 절반

수준까지 소화한다. 원래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며 농장으로 출퇴근 하였는데, 2017년 4월부터 젊은협업농장 청년들이 지내는 집에서 임시로 거주하다 최근에는 독립하여 인근 광천읍 아파트에서 지낸다.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은 농업 체험 활동의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과 매주 1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자, 여성 노숙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진 소방관과 경찰관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시간 정도 농장에서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주변 명소나 관광지로나들이를 간다. 센터에서 소개해주거나 행복농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연결해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7년에는 행복농장의 농업 생산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려고 일일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다.

자연구시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의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장애 아동 가족들과 텃밭을 경작하는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6년에는 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준 예산으로 나사렛대학교와 제휴하여 치유농업 스텝 양성 2박 3일 과정을 3회 실시하고, 서울의 미혼모 교육 시설의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2박 3일 프로그램을 6회 운영하기도 했다.

행복농장은 장곡면에 자리를 잡은 이후로 농장의 농업 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최정선씨는 농업 활동에 집중하는 인력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이 분리되지 않아 농업 생산에 집중할 수 없고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를 관리하는 것도 농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센터나 관련 기관 직원들이 참여자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농장 직원으로 배치되어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 농장 형편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사회적
농업

농장을 함께 운영할 일반인 직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행복농장이 출발할 때부터 농장의 실무이사를 맡고 있는 최정선 씨를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하다 중간에 그만두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아닌 이상 일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농업 생산도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다. 최정선씨는 수목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초·중학교 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10년 간 주민 교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행복농장의 일들을 잘 꾸려올 수 있었다. 현재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행복농장의 실무이사인 최정선 씨와 최근에 젊은협업농장에서 농업 교육을 받고 행복농장으로 넘어온 청년 1명이 전부다. 현실적으로 농장에서 관찮은 월급을 주면서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인데다, 뜻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만성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만성 정신질환자를 고용하여 농업 생산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가도 넉넉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농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최정선씨는 행복농장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에 있다고 이야기 한다. 농장에서 일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정신질환 증상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장을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과 마주치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각종 작업을 스스로 해내면서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 처음에 농장에 왔을 때는 경계하고 눈도 쳐다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님이 오면 커피도 타주고 인사도 잘한다고 한다. 그리고 행복농장이 문을 닫지 않고 지금껏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짬은협업농장은 정신질환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행복농장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고, 인근 농장들은 행복농장과 협력하여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왔다. 충남 광역 정신 건강 복지 센터는 자연구시 프로그램의 파트너로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관련 기관들을 소개해주었고,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였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 기술지원 시범 사업’으로 행복농장에 9천만 원을 지원해주어 농장은 지원받은 돈으로 농기계 구입, 비닐하우스 보수, 부엌 및 휴게 공간 설치 등 농장의 시설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보태었다. 행복농장은 홍성유기농조합법인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의 대부분을 출하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수준의 농업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행복농장이 위치한 도산리 주민들은 행복농장에서 하는 일을 지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있다.

행복농장은 농업을 매개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다. 아직 제도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런 실천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고령화, 귀농·귀촌, 다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농촌 지역에 양산되는 사회적 배제에 농업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해 연구원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삼의지리

따뜻한
정책을 말하다

삶의질 따뜻한 정책을 말하다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행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김기훈

기획 | 농림축산식품부 정재균, 이성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TEL 044-201-1518~9

발행일 | 2017. 12.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 이 책에 수록한 글과 사진의 무단 게재를 금합니다.

살의질 따뜻한 정책을 말하다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살의질 정책연구센터